

경동중고등학교
총동창회보
2025년 봄
(제144호)



東仁郎

校訓
성심껏 배우자
책임을 다하자
나라를 빛내자

서울 성북구 보문로29길 49, 동인관(삼선동3가, 경동고등학교) 02)744-1001~2 FAX 02)741-5868 <https://cafe.daum.net/kyungdongi> 값 5,000원



제36대 총동창회장
김상순(33회)

연 어

어느 계곡 맑은 물 바위 밑
알에서 깨어나 눈을 뜨면서
어미가 주는 어미의 생명을
달게 받아 먹으며 쑥쑥 자랐다.

어느덧 더 큰 세상을 보고 싶어
시내를 훌러 강을 지나 바다에 이르러
세상의 넓음과 또 그 깊음과
우주 너머 하늘의 높음도 보았다.

문득 떠나온 고향이 사무치게 그리워
철모른 때 친구들과 혜엄치던
그 계곡 맑은 물 바위 밑
등지 틀고 몸 속 가득한 알들을 산란한다.

옛적 어미 고기가 그랬던 것처럼
살과 피를 떼어 먹이면서
꿈 속 어미의 음성을 듣는 듯
아름답고 찬란한 하늘을 꿈꾼다.

-장우천(28회) 동문



Contents



- 4 제36대 총동창회 집행부
- 5 2025년 주요행사 일정
- 6 신년대담
- 9 만평
- 10 제2회 경동사랑음악제
- 13 제59기 정기이사회
- 14 2024 경동인의 밤
- 16 2024 경동사랑 한마음 체육대회
- 18 2024 경동사랑 골프대회
- 20 서울시교육청 항의 시위
- 22 인터뷰 | 오춘식 동문
- 24 경동 오름 장학금
- 25 장학회 소식
- 28 회별소식
- 36 지부별소식
- 38 해외지부소식
- 40 동호회소식
- 48 동문포커스
- 50 동문동정
- 54 카툰스토리
- 56 모교소식
- 58 섬기행 2회
- 60 하루100원 캠페인
- 66 동창회비·회장단 회비·장학기금 기부자
- 72 동문투고
- 74 삼각산

東仁節

동인랑이란 '경동의 어진 사내'란 의미다. 경동인의 이상과 포부, 호연지기를 표출하며 경동인으로서의 자존과 이상, 교훈을 실천하려는 깊고 넓은 포부 등이 담겨 있다.
題字는 14회 白石 金振和(한국서화협회 고문) 동문이 써주셨다.

제36대 총동창회 집행부



하나되는 경동! 도약하는 경동!



회장 김상순



수석부회장 김범초



재무부회장 고대면



대외협력부회장 공성국



전략기획부회장 안기환



홍보부회장 손장환



문화부회장 홍현종



SNS부회장 임순범



동호회부회장 오동희



사무부회장 윤동열



선임(원로)부회장 전진옥



선임담당부회장 강인순



선임담당부회장 강우일



동기담당부회장 이우교



후임담당부회장 하은실



후임담당부회장 오세정



총동창산악회장 박영우



총동창당구회장 이상봉



총동창골프회장 홍순식



야구중흥위원장 김학권

2025년 주요행사 일정

• 제59기 정기총회 •

3월 6일(목) 18:00
디노체컨벤션

• 제9회 경동사랑 축구대회 •

4월 5일(토) 13:00
경동고운동장
(40회 이후 육성대회)

• 제9회 경동사랑 당구대회 •

5월 24일(토) 09:00
쉐빌로뜨당구클럽

• 제9회 경동사랑 골프대회 •

8월 25일(월) 11:00
골드CC(예정)
(참가접수기간 6월 1일~14일)

• 경동OB합창단 정기연주회 •

10월 23일(목) 19:30
서울아트센터 도암홀
(평창동)

• 2025 경동사랑 체육대회 •

10월 25일(토) 09:00
경동고운동장

• 2025 경동인의 밤 •

12월 12일(금) 18:00
엘타워 그랜드홀

• 2025 총동창산악회 •

3월 8일(토)
제48차 정기산행 및 2025 시산제
월악산 제비봉 / 잠실종합운동장역 07:20

6월 14일(토)
제49차 정기산행

9월 13일(토)
제50차 정기산행

12월 13일(토)
제51차 정기산행

환경에 따라 일부 일정은 취소,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고승환(35대 총동창회장)

VS

김상순(36대 총동창회장)

새해 새 출발이다. 경동중고등학교총동창회가 제36대 총동창회장단을 꾸리고 새로운 도약에 나섰다. 빠르게 변하는 시대, 제36대 총동창회도 비상한 각오로 동창회와 모교 발전을 위한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앞서 이룬 업적을 이어받아 새로운 성과를 창출해 내는 가운데 경동의 이름은 더 빛을 발할 것이다. 그런 사명을 주고 받는 고승환(31회) 전임 총동창회장과 김상순(33회) 후임 총동창회장이 만나 덕담과 각오를 나눴다. 손장환(33회) 신임 동인랑 편집위원장이 대담을 진행했다.

편집자 주

“더 다가가고 더 뛰며 동창회와 모교발전 견인”

손장환 세상은 혼란스럽지만 해가 바뀌고 총동창회 회장단도 바뀌었습니다. 전임 후임 두 분 회장님들의 만남을 통해 중책의 계승과 발전적 대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오늘 이 대담이 두 분의 이임과 취임의 소회를 겸해 동창회 발전의 초석이 될 것입니다. 먼저 전임 회장님께서 차기 회장단을 위해 덕담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승환 제36대 총동창회를 이끌어 가는 회장직을 맡아 줘서 고맙습니다. 다소 급하게 맡은 일이라 얼떨떨하겠지만, 기쁜 마음으로 대업에 임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상순 갑자기 맡게 되면서 스스로 ‘팔자타령’도 해봤지만, 막상 일을 맡아 시작하고 보니 이게 매우 소

중한 것임을 느끼게 되고 제대로 해야겠다는 생각이 앞서게 되었습니다. 눈 덮인 들판을 처음 가는 심정으로 나아가야 하겠다는 겁니다. 저희가 무시험 첫 회라는 사실이 또한 다양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앞선 회장단에서 살림을 매우 크고 넓게 갖추어 두셔서 그걸 다 감당하기에 벅찬 것도 사실이지만, 저희가 중요한 변곡점에 서 있다는 점을 잊지 않고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눈 덮인 들판을
처음 걷는 심정으로
선배들의 성과에
누가되지 않도록
열심히 뛰겠습니다.

고승환 나도 그렇게 눈 덮인 들판에 발자취를 남기는 기분으로 일을 했었어요. 나 역시 총동창회장이라는 중책을 맡으리라고는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결국 일을 맡게 되었고 걱정도 많았어요. 그렇지만 나에게 주어진 소명을 받아들이고 이왕 할 거라면 잘 해보겠다는 다짐

과 함께 동기들에게 많은 도움과 역할 분담을 했죠. 결국 자주 모이고 서로 얘기 나누며 일을 하니까 되긴 되더군요. 필요하고 질문을 해 오면 자문은 하겠지만 전임자로서 후임자들이 하는 일에 드러나게 신경쓰거나 간섭 할 생각은 없습니다.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함께 하는 분들과 파이팅하기 바랍니다.

김상순 갑작스럽게 중임을 맡아 회장단을 구성하고 연말 여러 모임을 다니다 보니 정말 바쁘게 시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 모임과 동기회 등을 다니면서 가장 절실하게 느끼는 것은 아무래도 후배 기수가 탄탄하지 못한 점입니다.

현재 40회 이하 동문들의 결속과 활발한 활동, 야구를 통한 동문애 확장 등등 앞선 회장이 하셨던 고민을 그대로 승계하지 않을 수 없고 거기에 또 저희의 노력을 통한 발전적 대안들도 모색하고자 합니다.

손장환 여기서 전임 회장님께 임기 동안 잘했다고 생각하시는 부분과 아쉬운 부분을 얘기듣고 싶습니다.

고승환 취임하면서부터 강조한 것이 '공감과 소통'이었어요. 막상 총동창회를 맡고 생각해보니까, 시험 세대, 무시험 세대 그리고 교복 자율화 세대가 우리 동문들의 구성 바탕이더라고요. 급격한 시대 흐름에 따른 어쩔 수 없는 것이었지만, 그래도 우리 동문은 경동이라는 이름 아래 하나잖아요. 그래서 더 많이 공감하고 더 많이 소통하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각 회별 동문들과 만나고 얘기 나누며 동문회



고승환(35대 총동창회장)

와 모교 발전을 위한 역할 모색을 했던 겁니다. 우리 회장단은 그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가교역할을 하는 게 가장 현실적인 일이었고 나름의 성과는 있었다고 봅니다. 그렇게 소통한 경험이 다음 회장단에도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른바 '경동 야구'도 중요한데, 결국 야구는 성적이 말해 주는 것이거든요. 다만 성



김상순(36대 총동창회장)

적을 잘 내기 위해서는 학교와 감독 코치진 그리고 동문회가 상당히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지속 가능한 지원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야구 뿐만 아니라 다른 스포츠 지원도 필요한 만큼 소임을 수행하면서 조금씩 상향해 나가는 것이 좋을 것인

라 봅니다. 욕심인지 몰라도 저는 저 나름대로 목표한 총동창회 자본의 규모가 있었는데 그에 미치지는 못한 듯 해서 좀 아쉬워요.

김상순 앞으로 우리 동창회는 회장단을 거르지 않고 지속적으로 회장단을 맡아서 전통과 발전 기조를 이어가야 할 것이라 봅니다. 지금 상황에서 열심히 하겠다는 각오 밖에 다른 게 뭐 있겠습니까?

고승환 결국 회비 관리가 중요한데, 총동창회 재정 구조가 탄탄해지는 것도 각 회별 동창회가 잘되어야 하는 거죠. 앞으로 이어가는 회장단은 적립된 회비를 쓰는 게 아니라 점차 추가해 나가도록 할 필요가 있죠. 어느 때부터는 조금씩 소모적인 예산을 쓸 수 밖에 없게 될 겁니다. 동참률이나 기부 규모가 점점 줄어들 것이니까요. 아무튼 당분간은 탄탄한 재정

구축을 이어가야 합니다. 이번 36대 회장단도 그러한 기초를 잘 닦아 줄 것이라 봅니다.

김상순 어느 모임이든 회장이 몸으로 뛰는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 동기회나 총동창회 구성원들이 저를 얼마나 신뢰하고 동참해 줄 것인가에 달린 것 같습니다. 회장단이 한 발 더 뛰자는 각오는 하고 있습니다.

고승환 중요한 것은 동기부여거든요. 도와준 만큼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성과를 내야 하고 설령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그에 대해 이해 시키면서 공동체 인식을 높여 나가야 한다는 거죠. 회비 든 발전기금이든 낸 사람은 낸 보람을 가져야 하는 게 기본이죠. 예를 들어, 행사가 잘 되면 거기 찬조한 동문이 자부심을 느끼잖아요. 그런데 회장단은 그 찬조에 대한 고마움을 충분히 표현하고 여러 사람이 알 수 있게 홍보도 해야 하거든요. 동인랑도 그런 알림 기능이 있으니 십분 활용하라는 겁니다. 그런 분위기가 발전 에너지가 된다고 봐요. 이번 36대 회장단이 보여주는 어떤 모델이 앞으로 후배들에게 적지 않은 영향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점에서 더욱 왕성한 활동을 바랍니다.

김상순 '하루 100원 경동사랑' 운동을 좀더 열정적으로 이어가는 방법을 더 연구해 볼 필요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교를 졸업하는 후배들이 경동의 동문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도 필요한 듯합니다. 젊은 세대의 감각이 어떤지 그들의 기억에서 모교가 어떤 의미인지 골고루 생각해보려 합니다. 후배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저희가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후배 기수의



저변 확대를 위해 저 또한 공감과 소통의 행보를 이어가겠습니다. 저희 33회가 기금모금도 시작했고, 동기회도 더 잘 될 것이기 때문에 더 많은 일을 할 저변은 마련되었다고 봅니다. 이왕 주어진 소명이니 열심히 하겠습니다.

손장환 오늘 대담을 통해 전임과 후임 회장님들이 허심탄회한 말씀을 많이 하셨으니 앞으로도 더 발전적인 대화를 이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진·정리/편집위원 임연태(39회)



편집자 주

'2024 경동인의 밤'에 참석한 2023년도 졸업생, 80회 김범수 동문이 현장에서 느낀 점을 만평으로 표현했습니다. 경동의 동문 선배들이 자랑스럽고 본인도 경동의 일원이라는 것에 큰 자긍심이 생겼다는 감회입니다.

경동의 음악가와 애호가들이 협연한 음악축제

제2회 경동사랑 음악제 - The Concert 鄭愁, 그리움



2022년 11월 5일에 처음으로 열린 총동창회음악회-경동사랑음악제-는 2년의 기획과 준비과정을 통해 전문성을 극대화한, 보다 완성도가 높은 무대로 다가왔다.

2024년 11월 2일 동인관 대극장에서 개최한 제2회 경동사랑 음악제는 약 600명에 이르는 경동의 동문과 가족들, 지역주민, 학부모, 경동의 교사들로 가득찼다.

제35대 총동창회 문화부회장인 김주환(31회)준비위원장과 추진위원들은 수차례의 기획회의를 통해 제2회 경동사랑 음악제를 'The Concert-향수, 그리움'이라는 주제로 정한 후, 경동의 다양한 음악가들을 만나 음악회의 컨셉 및 추진방향 등을 논의하였다. 이 과정에서 싱어송라이터이자 공연연출가인 박학기(39회)동문을 총감독으로 섭외한 후 천안시립합창단 예술감독 및 상임지휘자인 임한규(39회)동문을 예술감독으로 선임하였다.

음악회의 개최 목적은 경동이 배출한 음악가들과 동문 애호가들이 협연하는 동인랑 음악축제를 통

해 제35대 총동창회의 캐치프레이즈인 '함께하는 경동'의 의미를 창출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경동의 공연, 무대, 예술인들이 대거 동참하게 된 것이다.

총감독인 박학기와 예술감독인 임한규 지휘자를 비롯하여, 블랙테트라의 고상록(33회), 성시경밴드 마스터인 안준영(43회), 옥슨91의 서형무(46회), 포크가수 허영택(46회), 배

우 이성원(46회), 바리톤 이광희(42회), 테너 백광호(49회), 테너 석승권(49회)이 뜻을 모아 음악회에 출연, 동참하게 되었고 아나운서 신영일(47회)의 진행은 음악회의 품격을 높이는데 일조했다.

음악제의 1부는 '클래식 향연-鄧愁'로 진행되었다.

사미인곡합창단(지휘 장택순, 32회)이 음악제의 첫 무대를 연 후, 음악제를 위해 2024년 6월 24일에 창단한 경동OB합창단-지휘 임한규-이 오페라 탄호이저 중 '순례자의 합창'을 시작으로 조용필(25회)동문의 '바람의 노래'에 이르기 까지 벅찬 감동의 무대를 선보였다. '경동OB합창단'의 합창의 깊이를 더해 준 것은 피아노와 현악4중주의 연주였다. 앙코르 요청에 따른 1부의 마지막 곡인 '한계령'에서는 관객들에게 그야말로 절정의 감동을 선사함으로써 열광적인 환호와 기립박수를 받았다.

경동OB합창단의 창단공연이 음악회의 백미였음

은 분명하다. 27회부터 59회까지 총18개 기수, 51명의 단원이 함께 연습하고 준비한 여정에서 만들어 낸 경동OB합창단은 경동의 역사에 오래 기억되며 회자될 것이다. 이번 음악제를 계기로 경동OB합창단-단장 조동식(27회), 총무 이경초(39회)-은 지속적인 정기연주회 개최를 위해 매주 월요일마다 함께 모여 노래하는 총동창회의 공식동호회로 자리를 굳혔으며, 다가오는 2025년 10월 23일 서울아트센터에서 '제2회 경동OB합창단 정기공연'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은 연속성의 성과로 의미하는 바가 매우 크다.

1부의 중간에 게스트로 참여한 숙명여대 성악과 교수인 소프라노 박현주의 독창과 현역 성악가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49회의 테너 백광호, 석승권 동문의 듀엣은 음악제의 전문성을 높이는데 주효한 역할을 해주었다.

2부는 '그리움'을 주제로 한 대중음악의 향연으로 꾸며졌다.

뮤지컬 배우 박규연(31회 박병일 동문의 딸)의 뮤지컬 넘버에 이은 박학기, 임한귀 동문의 크로스오버

듀엣, 초대가수 '알리'(27회 조동식 동문의 조카)의 열창은 인생에 대한 그리움과 추억을 소환하는 감성적인 무대로 가득 채워졌으며, 무대마다 관객들의 뜨거운 호응과 갈채를 받았다.

2부의 하이라이트는 단연 'KD슈퍼밴드-블랙옥슨'의 무대였다. 어쿠스틱 기타에는 블랙테트라 2기 이자 명곡 '구름과 나'를 작사, 작곡 한 고상록, 배우 이성원, 일렉트릭 기타에 박학기, 허영택, 키보드에 김태빈(40회), 피아노와 드럼에는 프로듀서이자 성시경 밴드마스터인 안준영, 베이스 기타는 옥슨91의 서형무(46회, 실용음악 교수)가 각 파트를 맡아 각자의 대표곡들과 추억의 팝을 연주하며 노래했고, 음악제의 피날레를 관객과 함께 장식했다.

- ① 제35대 총동창회장 고승환(31회)
- ② 바리톤 이광희(42회)
- ③ 듀엣 / 예술감독 임한귀(39회), 총감독 박학기(39회)
- ④ String Quartet / 김주은, 이승윤, 김아란, 홍백설
- ⑤ 테너 백광호(49회), 석승권(49회)
- ⑥ MC 신영일(47회)





① 초대가수 알리
 ② 국회의장 우원식(32회)
 ③ 뮤지컬 배우 박규연
 ④ 소프라노 박현주
 ⑤ 'KD슈퍼밴드-블랙옥슨'
 고상록(33회), 박학기(39회), 김태빈(40회),
 안준영(43회), 서형무(46회), 허영택(46회),
 이성원(46회)

정서적 소통과 공감의 도구로서 음악이라는 매개는 그 어떠한 행위보다 결속과 연대의 동질감을 형성하는데 있어 매우 효과적이라 본다. 특히 준비와 창작과정에서 얻게되는 공동의 협력과 완성의 희열은 제35대 총동창회의 캐치프레이즈 '함께하는 경동, 영원하라 경동'에도 걸맞는 또 하나의 방법이었다.

협력으로 함께 만들어 낸 감성의 공감대는 그 과정과 결과에서 분명 총동창회에 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승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동인랑으로서의 자긍심과 '함께'라는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동행의 가치를 만들어 낸 제2회 경동사랑 음악제.

전례없는 동문들의 참여와 후원, 전국 지부와 해외 지부에 이르기 까지 뜨거운 관심으로 이어진 행사와 기획이었기에, 그 가치는 영원할 것이며 다시 새로운 이야기에 대한 기대로, 또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을 믿는다.

제2회 경동사랑 음악제를 축하하기 위해 우원식 국회의장(32회), 김영배 국회의원, 이승로 성북구청장, 한상준 경동고등학교장 등이 내빈으로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으며, 5개의 언론사에서는 음악제에 큰 관심을 갖고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경동고 내 동인관 대극장은 총502석의 객석 규모를 갖춘 다목적 강당이지만 준비위원회는 음악제의 예술성과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확장 특수무대를 제작했다. 과감한 투자로 총 5면의 대형LED를 배경 세트로 만들었으며, 음악제의 수준을 보다 높이기 위해 국내 최고의 음향, 조명, 방송 스태프들과 협업체계를 갖추어 진행하였다. 이같은 제작방향과 무대 컨셉을 갖출 수 있었던 배경에는 제35대 총동창회장인 고승환 동문의 결단과 과감한 뒷받침 없이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었다.

“경동의 Class를 높이는 것은 문화와 예술에 있다” 이것이 고승환 제35대 총동창회장의 음악제 화두였다. ■

글/ 사무총장 김태빈(40회)
 사진/ 경사회 한형묵(46회)

제59기 정기이사회

33회 김상순 제36대 총동창회장 선출

2024년 11월 8일 18시, 왕십리 디노체컨벤션에서 75명의 동문들이 참석하여 제59기 정기이사회를 개최하였다. 이사회 구성원은 각 동기회 회장, 총무와 동호회, 지부의 회장, 총무로 구성된다.

이상민(35회) 사무부회장의 사회로 개회가 선언된 후 제35대 재무부회장인 차몽건(31회)동문이 2024년도 동문 애경사 지원, 하루100원 경동사랑, 모교 발전을 위한 지원, 총동창회 주관 행사 등의 현황을 보고하였다.

2024년도의 개인별, 회별 기부는 회장단비, 발전기금, 장학금, 야구후원금 등의 항목별 보고에 이어, 집행부 회인 31회의 2023년과 2024년 2년 동안, 약4억원에 이르는 적극적인 기부현황 보고에서는 참석자들의 탄성과 박수를 받았다. 행사마다 규모와 내용면에서 풍부했던 것은 이와 같은 기부릴레

이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35대 총동창회는 차기 36대에게 일반회계, 발전기금, 야구기금, 장학기금, 재단법인 총계에서 2023년 인수시의 금액보다 약 4억 5천만원의 이익잉여금을 인계하게 되었다.

이번 이사회의 주요 안건은 제36대 총동창회장 선출이었다. 후보자의 약력 소개와 의결에서 참석자들은 만장일치로 추대와 승인을 하였고 김상순(33회)동문이 제36대 총동창회장으로 선출되었다.

김상순 신임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선배님들이 만들어 놓은 빛나는 전통을 잘 계승하여, 함께 동행하는 동창회가 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하였고, 이사회는 화답의 박수와 환호로 김상순 총동창회장을 축하하며 회의를 마쳤다. 



2024 경동인의 밤 성황

“함께하는 경동, 영원하라 경동!”

5백여 동문 참석 ‘경동사랑대상’ 시상 등 훈훈한 시간

2024년 11월 27일(수) 오후 6시, 양재동의 엘타워 그랜드홀과 엘하우스홀은 482명의 동문들로 문전성시를 이루었다. 공감과 소통을 위해 지난 2년 동안 쉼 없이 달려 온 제35대 회장단의 행보에 마침표를 찍는 ‘2024 경동인의 밤’이었다.

7층 그랜드홀 로비는 제35대 총동창회장인 고승환(31회) 동문과 제36대 총동창회를 이끌 김상순(33회) 동문이 선·후배들을 맞이하며 격려와 축하의 덕담을 주고 받는 장면들이 연속 이어졌다.

여익현(31회) 기획부회장이 지난 2년의 경과와 결산보고를 진행하는 중간마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하루100원 경동사랑의 성장과 총동창회에서 장학재단에 7천만원을 기탁하는 순서에는 환호와 함성이 울려 퍼졌다.

시상식에서는 졸업50주년 행사 후 총동창회에 발전기금을 전달한 30회 동창회(회장 송민희, 총무부

회장 안민성)와 졸업40주년 행사를 치른 후 발전기금을 기탁한 40회 동창회(회장 노승구, 추진위원장 전승재)에 감사패를 수여했다.

이어 제35대 총동창회 임기 중에 함께 해준 집행부와 회장단에 대한 감사패는 차몽건(31회) 재무부 회장이 대표자로 단상에 올라 수상하였다.

감사패 수상자는 35대 집행부의 부회장으로 활동한 오준근(31회), 차몽건, 여익현, 윤용승(31회), 김



기권(31회), 김주환(31회), 이호성(31회), 박병일(31회), 정용식(31회), 이종철(31회), 최동욱(31회), 이문규(31회) 동문과 회별 부회장으로 함께 봉사해 준 이기안(34회), 석정길(35회), 정중근(35회), 김길동(37회), 이승엽(37회), 박상남(37회), 김재우(38회), 임중혁(38회), 고영주(41회), 안상중(44회) 동문이다.

또한, 총동창회의 눈부신 성장과 발전을 위해 10년 동안 헌신적으로 노력과 봉사를 해준 이상민(35회) 동문에게는 공로패가 시상되었다.

2025 경동인의 밤의 하이라이트는 '경동대상' 시상이었다. 제5대 장학회장을 역임하고 그동안 총동창회 발전을 위해 한결같은 마음으로 헌신한 오춘식(24회) 동문에게 수여가 되었는데, 이 경동사랑 대상은 2024년 11월 8일에 열린 제59기 정기이사회에 참석한 동문들의 만장일치 추대와 함성으로 이루

어진 가치이기에 경동의 역사에 길이 남을 것이다.

마지막 순서는 이사회에서 승인한 제36대 총동창회장에 대한 소개와 인사였다. 제36대 총동창회 회장으로 선출된 김상순(33회) 총동창회장은 "35대 집행부의 성과를 잘 계승하여 한걸음 더 도약하는 36대 총동창회가 되겠다"는 수락 인사로 기립박수를 받았다.

1부 공식행사 후에 이어진 2부 만찬과 여흥의 시간에는 사무총장 김태빈(40회)의 사회로 비스타밴드, 군조크루, 팝페라 가수인 소프라노 고현주의 공연무대로 연회를 가졌다.

경동의 역사에 또 하나의 기록을 남긴 제35대 총동창회는 우리들의 오랜 기억과 추억 속에 영원히 남을 것이다. 



2024 경동사랑 한마음 체육대회 동문들 돈독한 우정 쌓은 축제 한마당

2024 경동사랑 한마음 체육대회가 2024년 10월 12일에 모교에서 개최되었다.

경동고등학교의 운동장, 실내체육관, 동인관에서 열린 이 행사는 21회부터 51회까지 총 24개 동기회의 5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축구, 족구, 탁구, 농구 자유투, 페널티 킥 등 5개의 종목과 함께 기우회 주관의 '제14회 경동중고등학교총동창회장배 바둑 대회'도 병행하여 개최했다.

고승환(31회) 제35대 총동창회장의 인사말과 2024 체육대회장인 이호성(31회) 동문의 개회선언 후, 4인조 여성 치어리더팀의 레크레이션 체조는 참가자 모

두에게 웃음이 넘치는 토요일 오전을 선사했다.

종목별 토너먼트 방식이 진행되는 가운데 한쪽에서는 40회 동창회(회장 노승구)의 먹거리 장터가 열려 동문들의 큰 호응을 얻었으며, 회별 텐트마다 다채로운 메뉴의 음식들이 축제의 흥을 돋우었다.

모든 종목의 결승전이 끝난 후 폐회와 시상식에는 점핑 피트니스 강사인 개그우먼 김명신이 출연하여 참석자들과 함께 즐거운 여흥의 시간을 가졌다.

어느 해 보다 원활했던 경기 운영으로 체육대회는 계획된 시간 내로 마칠 수 있었고, 삼선교 일대의 식당가는 온통 동인랑의 목소리로 가득 찼다. ■





2024 한마음 체육대회 종목별 시상

	1위	40회
축 구	2위	46회
	3위	35회
족 구	1위	35회
	2위	40회
	3위	39회
농 구	1위	46회
자유투	2위	41회
	3위	51회
페널티킥	1위	46회
	2위	39회
	3위	28회
탁 구	상위부 1위	29회 A
	2위	41회 A
	3위	34회 A
하위부	1위	34회 B (공동우승)
	2위	39회 (공동우승)
	3위	22회 연합 / 29회 B

2024 경동사랑 골프대회 필드에서 꽃피운 선·후배의 교감

제8회 경동사랑 골프대회가 2024년 8월 26일, 골드CC에서 성대하게 열렸다.

320명 참가자 모집 공고 후 단 6일만에 330명이나 신청해 조기 마감했고, 부득이 일부 인원을 조정할 수밖에 없었다. 이는 2019년에 골프대회가 10년 만에 부활한 이후, 그동안 연속성을 갖고 꾸준히 운영해 온 결과 이제는 안정적으로 정착이 되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2024 경동사랑 골프대회는 11회부터 57회까지 총 35개 동기회에서 324명(81팀)이 선수로 참가했다.

오후 1시 30분에 36홀 샷건으로 시작된 이 대회는 신페리오 부문과 스트로크 부문을 함께 적용하였다. 특별 부문은 OB와 YB로 구분하여 시상을 하고, 조편성은 동문 선·후배 간의 교류를 위해 근접 회별로 혼합하여 편성되었다.

연일 계속된 무더위를 감안하여 개회식을 과감히 단축한 것은 탁월한 기획이자 선택이었다. 의례적인 것은 생략하고 핵심만을 적용, 개회식 시간을 20분

에서 5분으로 압축할 수 있었다.

대회장인 고승환(31회) 제35대 총동창회장은 개회식을 통해 “‘함께하는 경동’을 위해 공감과 소통을 잇는 멋진 시간이 되길 바란다”는 말로 환영사를 마친 후 대회장을 방문한 엘앤피코스메틱(주)의 권오섭 회장(34회)을 소개했다. 권오섭 회장은 ‘메디힐’이라는 마스크팩 브랜드로 전세계 압도적인 1위의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는 회사이다. 권회장은 축사와 함께 이날 스트로크 부문의 우승, 준우승자에게 특별 부상으로 ‘2025 메디힐 KLPG 대회’ 프로암 대회에 초청을 하겠다는 약속을 하여 참가자들로부터 큰 관심과 박수를 받았다.

대회를 알리는 시타는 박기천(11회 회장), 김광중(29회/제33대 총동창회장), 고승환(31회/제35대 총동창회장), 최동욱(33회/제8대 장학회장), 권오섭(34회/엘앤피코스메틱 회장), 이승엽(38회/2024 골프대회 경기위원장)이 참가자들의 함호와 함성을 받으며 진행되었다.



매년 대회마다 회별 찬조와 개인 찬조는 대회를 풍성하고 원활하게 만들었다.

이번 대회에도 19명의 개인 찬조와 8개의 골프회, 동호회 등의 찬조가 있었기에 대회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는 배경이 되었다.

조마다 화목한 분위기에서 펼친 필드 위의 경연이

끝난 후 모든 참가자들은 연회장에 모여 시상식과 폐회식을 축제로 즐기며 2025 경동사랑 골프대회에서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였다.

기존 대회와의 차별화된 전략과 대회 진행의 효율을 높였다는 것이 2024 경동사랑 골프대회에 대한 총평이다. ■

2024 경동사랑골프대회 시상

메달리스트

- 1위 박상남(37회) 4언더파 68타
- 2위 박학기(39회) 3언더파 69타
- 3위 이홍상(47회) 2언더파 70타

신패리오

- 1위 김범석(40회) 75타, HD6/69
- 2위 하승재(40회) 86타, HD16.8/69.2
- 3위 정진대(41회) 82타, HD12/70

롱기스트

- OB(11~30회) 최준식(28회) 232m
- YB(31~53회) 고동희(46회) 280m

니어리스트

- OB(11~30회) 박기천(11회) 0.2m
- YB(31~53회) 김의진(35회) 0.2m

개교84주년기념상

- 스트로크 84위 류지호(46회)
- 신패리오 84위 박영철(46회)



총동창회, 서울시교육청 항의 시위

“경동고 2학급 축소, 시정하라”

조선, 중앙 등 주요 일간지 보도

총동창회(회장 김상순 33회)는 경동고 학급 축소에 항의하기 위해 1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서울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항의시위에는 연인원 200여 동문들이 참여했다. 시교육청은 학생수 감소에 따라 2025년에 경동고 24개 학급 중 2개 학급을 줄인다고 통보했다. 총동창회는 경동고의 감축률이 타 학교에 비해 심한 점을 강조하며 투명한 자료공개를 요구했다. 한편, 조선일보, 중앙일보 등 주요 일간지들이 총동창회의 활동을 잇따라 보도했다. 다음은 조선일보 2월 19일자 기사다.

고교 비평준화 시절 서울 5대 명문 공립고등학교였던 경동고의 총동창회가 '모교 살리기'에 발 벗고 나섰다. 학령인구 감소 여파로 경동고 학급 수가 줄어들자, 총동창회에서 지난달 '학급 축소 반대' 시위를 진행한 데 이어, 최근 '학생 유치 TF(태스크포스) 팀'을 꾸리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동고 총동창회는 관내 중학생들에게 경동고 투어와 함께 입학 설명회 등을 추진하고 있다.

경동고는 지난해 한 학년
마다 8개 학급이 있었는데,
올해 1·2학년은 1학급씩 줄
여 각각 7학급을 운영한다.
올해 정교사 배정이 작년보
다 4명 줄고, 신입생이 173
명에서 147명으로 줄어든
여파다. 학령인구 감소 등으
로 서울지역 고교 1학년 학
급 수는 매년 감소 추세다.
재작년 2001개에 달했던 서
울지역 고1 학급수는 올해

1777개로 줄어들었다.

1학년 뿐 아니라 2학년 학급 수까지 줄어든 것은 경동고에 매년 30여명의 야구 특기생이 대거 입학하기 때문이다. 1학년 때 10명 안팎의 주전 선수로 선발되지 못하면 대부분 2학년이 되기 전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경동고는 모든

The JoongAng

정부 “올해 교사 정원 2800명 감축”…교육청·학교 “교육질 저하 우려”

증정일보 | 입력 2025.01.22 11:00

이보람 기자 최민자 기자

구독

21일 오전 서울 성북구 경동고등학교 동문 500여명이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청문 앞에 모여 학급·교원 감축에 반발하며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이보람 기자

학년에 특수 학급이 1개씩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부하는 학생은 입학 정원보다 적다.

그러자 총동창회는 “모교가 존폐 기로에 처하게 됐다”고 판단해, 단체 행동에 나섰다. 김태빈 경동고 총동창회 사무총장은 “이런 상황에서 학급이 축소되면 내신 반기가 불리해져 관내 중학생들에게 경동고는 진학 희망 학교 순위에서 밀리게 되고, 그러면 교육청은 교사 정원 감소로 학급을 줄일 때 다른 학교보다 경동고 학급 수를 먼저 더 많이 줄이는 악순환이 앞으로 반복되게 된다”며 “이를 막기 위해 총동창회가 나설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경동고 총동창회는 지난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학급축소를 막아달라며 3차례 시위를 벌였지만, 교육부와 행정부, 교육청에서 올해 교사 정원 배정 및 학급 수를 확정해 돌이킬 수 없게 됐다. 그러자 총동창회는 학생 유치 TF팀을 만들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찾아 경동고 지원율을 늘리기로 했다. 경동고로 진학을 희망하는 중학생들을 늘려, 내년엔 학급이 축소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김상순 경동고 총동창회 회장은 “학교와 별개로 총동창회가 직접 입학 설명회를 열어 1억 5000만원 가량의 총동창회 장학금이 경동고 학생들에게 어떻게 지원되고 있는지 등을 홍보할 생각이며, 관내 중학생들에게 교내 천문대·클라이밍장 등 우리 학교에만 있는 시설을 보여주는 경동고 투어도 고민 중”이라고 했다. 또 TF팀은 경동고 출신 성악가와 기타리스트 등이 공연하는 경동고 음악제에 동문뿐 아니라 인근 중학교 학부모들과 학생들도 초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 회장은 “지난번 서울시교육청 앞 시위 때 1000만원을 후원해주신 선배도 계셨다”며 “모든 동문들이 모교 살리기에 뜨거운 열정을 보내주고 있다”고 했다. 경동고는 고교 비평준화 시절 경복고와 경기고, 서울고, 용산고와 함께 서울 5대 명문 공립고로 꼽혔다. 우원식 국회의장, 이명박 정부에서 대통령 실장을 지낸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 가수 조용필 등이 경동고 출신이다. ■

오주비 기자 jubi@chosun.com

제36대 총동창회 회장단

출범을 축하합니다.

경북회 고 문 이순우(21회)

전우희(25회)

회 장 이추석(23회)

부회장 이두형(27회)

동참안내 : 임연태 사무총장 010-6236-5769

제36대 총동창회 김상순 회장

취임을 축하합니다.

33회 3학년 11반 일동

“발품 더 팔아 자주 만나고 재정 투명하면 모든 모임은 성공해요”



경동사랑 대상 수상 오춘식(24회) 동문

“어릴 적 궁핍했던 경험은 ‘어려운 사람을 돋자’라는 꿈이 됐고 ‘후대에게 자랑스러운 선대가 되자’라는 인생의 목표가 됐다. 그것이 내가 기부하고 봉사하는 이유다.”

24회 동기회는 타 동기회의 본보기가 되고 그 중심에는 오춘식 동문이 있다. 그는 지난 경동인의 밤에서 ‘경동사랑 대상’을 수상했다. 이 상은 ‘자랑스런 경동인’에 모교 사랑과 동창회에 대한 기여를 더 크게 고려하여 수상자를 결정한다. 오춘식 동문을 인터뷰하기 위해 그가 운영하는 교대 부근 ‘큐당구장’을 방문했다. 당구장에서는 경동 24회를

비롯, 여러 동문들이 게임을 즐기고 있었다. 당구장이 동창들간의 교류의 장을 제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Q ‘경동사랑 대상’의 첫 수상자가 되셨습니다. 소감이 어떠신지요?

A 경동사랑 대상 수상은 경동인에게 최고의 영예라고 생각합니다. 수상의 기쁨과 그로 인한 보람도 크지만, 가족들 특히 제 손자에게 인정받는 것이 가장 큰 기쁨입니다. 제가 동기회, 동창회 일을 하면서 가족들이 모교와 동창회를 대단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만큼 큰 위로와 격려가 없습니다.

Q 2012년 총동창회는 24회 동기회가 회장단을 맡아 크게 도약했고 현재까지 24회 동기회가 타 동기회의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다. 당시 수석부회장과 장학회장, 동기회장 등을 맡으셨는데 주요활동들을 소개해 주십시오.

A 24회 동기회가 총동창회를 맡았을 때 제가 수석부회장을 했는데 ‘하루100원 경동사랑’을 만들고 정착하는 데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장학회장으로서 장학기금을 소액으로 기부하는 것을 적극 권장해서 다수가 참여할 수 있도록 했죠. 이전까지 소수의 고액 기부를 통해 총동창회와 장학회가 운영되었는데, 동창회 규모가 커지면서 다수의 기부를 이끌어내도록 전략수정이 불가피했지요. 이것은 오늘

날 총동창회와 장학회 운영의 든든한 초석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24회 동기회는 애경사는 물론 반창회와 동호회 모임의 재정까지 지원해서 동기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결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반기 1회 동기들의 신상을 파악하여 최신의 정보로 주소록을 정비하고 필요한 정보를 동기회에 공유하기도 합니다. 이런 활동들이 타 동기회의 본보기가 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Q 24회 동기회는 25회, 29회, 31회와 더불어 '하루100원 경동사랑'을 500구좌 이상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동기회들은 오춘식(24), 임종관(25), 최병식(25), 김광중(29), 고승환(31) 동문 등이 각 100구좌로 솔선수범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죠. 총동창회와 동기회 리더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해주십시오.

A 오늘날 명문 학교란 공부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동창회 또한 개인과 사회환경의 변화로 존폐의 기로에 있죠. 대부분의 동창회가 졸업생 누계 인원은 꾸준히 늘고 있지만, 참여 인원은 오히려 줄고 있는 것을 보면 그 결속이 예전만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어려운 환경을 맞아 동창회의 리더들에게 다음 두 가지를 주문하고 싶습니다. 하나, 발품을 더 팔고 동문들에게 꾸준히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세요. 동창회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일수록 동창회가 절실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 때문에 상처 받지 말고 그들을 위해 더 열심히 활동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단 1원을 쓰더라도 투명하게 쓰고 내가 아무리 깨끗해도 보는 사람이 궁금해하지 않게 하라는 겁니다. 지금은

비록 더디고 힘들지만 좋은 결과는 기쁨이 되고 보람이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Q 동창회에는 선배님을 롤모델로 삼고 있는 후배들이 많은데 알고 계신가요? 그 후배들에게 조언하신다면?

A 동창회에 대한 공헌을 후배들이 인정해 준 결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사람과의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오래도록 회사를 경영하면서 직원을 해고해 본 적이 없습니다. 퇴직자에게도 때가 되면 선물 또는 DM을 보내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죠. 한 퇴직자가 부담스러우니 이제 그만 보내라는 회신을 받고 생각해보니 퇴직한 지 40년 된 직원이었습니다. 저학력 직원이 위축되지 않게 기억력과 기획력이 좋은 점을 칭찬하고, 오래 중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대하시기 바랍니다.



오춘식 동문은 “제36대 김상순 총동창회장이 어려운 환경 속에 총동창회를 맡게 되었지만, 누구보다 신뢰하고 응원한다”고 했다. 24회 동기회의 ‘하루100원 경동사랑’ 구좌 수가 500개 이하로 내려가면 얘기해달라며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그는 여전히 청춘이다. ■

글/ 편집위원 고기철(40회)



경동 오름 장학금, 지정기탁 후원자 모집

한 명의 인재가 변화를 만듭니다!

우수한 인재를 키우고 육성해야 경동의 미래가 보입니다!

우리가 함께 만들어 냅시다!

경동 오름 장학금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가능성 있는 인재들을

직접적으로 후원할 개인 및 단체의 지원 협조가 절실합니다.

다시 도약하는 경동의 미래를 함께 열어 갈 후원 동문을 찾습니다.

선발기준

- 출신 중학교 내신 5%이내 입학생 중 10명 선발
- (5%이내 학생 10명 / 초과시엔 성적순으로 차등 지급)

장학금 지급액

- 입학년도(1학년) / 중학교 내신 5%이내 입학생에게 매달 30만원 지급
- 2~3학년 / 전학기 내신 10%이내 유지했을 경우 매달 30만원 지급

※ 위 조건 3년 유지시 최대 1,080만원 장학금 지급

개인기탁지정 장학금

- 기부자 개인 이름으로 장학증서 교부
- 기부자 개인 이름으로 장학금 지급
(예/김경동 장학증서, 김경동 장학금)
- 연말정산시 세액공제 적용 혜택

단체기탁지정 장학금

- 기부단체, 법인명으로 장학증서 교부
- 기부단체, 법인명으로 장학금 지급
(예/경동물산 장학증서, 경동물산 장학금)
- 손비 세제혜택 / 법인세 절감

지원 현황

기부자	기부금액	기준
박재준(23회)	1,080만원	
오춘식(24회)	1,080만원	
이수연(28회)	1,080만원	
이종범(28회)	1,080만원	
정동기(28회)	1,080만원	
김승한(30회)	1,080만원	
권오철(31회)	1,080만원	
윤영식(29회)	720만원	3년(일시납) 입학성적 5% 이내 (매월 30만원 지급)
최광연(29회)	180만원	년360만원 x 3년약정 월30만원 x 6개월

| 후원자 신청 | 경동총동창회 사무국 02-744-1001

2025 (재)경동발전장학재단, 경동장학회

학생이 행복한 학교 만들기 장학사업 전개



최동욱 (33회) 장학회장

재단법인 경동발전장학재단과 경동장학회(회장 33회 최동욱)는 담당부서 및 학년별로 실제적인 현안을 함께 논의하고 지원 방안을 수립하여 전방위적인 지원과 협력을 도모하는 장학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2025년 장학사업은 좋은 대학을 많이 보내는 학교보다 좋은 학생이 많이 배출되는 학교를 목표로

삼아, 매년 지원하고 있는 장학금 제도와 경동아카데미 및 사이언스챌린지 지원사업 외에도, 학업 및 심리상담을 통한 대학별 전형분석 및 진학상담, 교과별 수행평가 활성화, 진로관련 동아리 활동 지원, 도서관 프로그램 활성화, 면접지도, 삼품제 시상 등 재학생들의 학습환경과 면학 분위기를 높이기 위해 보다 폭넓은 범위로 사업계획을 검토 중이다.

최동욱 제8대 장학회장은 다니고 싶은 학교, 학생이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장학재단 이사회는 물론, 교사, 학생회 대표들과 지속적인 대화와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

비바미 어싱(접지)신발이 출시되었습니다.

비바미 어싱신발은 **특수 도전고무**를 사용하여 인체와 땅의 전기적 연결 상태를 유지하면서, 인체내 정전기를 줄여 줍니다.

비바미 어싱신발은 맨발로 걷는 느낌을 전달할 수가 있으며, 걸으면서 길거리의 요철 상태가 발 지압을 자연스럽게 하게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에서 '어싱신발'을 검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볼넓은 신발

맨발같은 신발

KSNS 적용 신발

접지 신발



판매처 : vivame.co.kr



네이버 쇼핑 검색 (검색어 : 비바미신발)

자율학습 · 총동창회지원 학교생활에 큰 힘

– 고려대학교 진학 김근형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인공지능학과에 진학하는 김근형입니다. 고려대학교 외에도 연세대학교, 포항공과대학교와 한양대학교, 그리고 광주, 대구, 울산 과학기술원에 합격하였습니다.

저에게 가장 도움이 되었던 교내 활동은 '전공설명단'입니다. 전공설명단은 관심 분야에서 1년간의 탐구 주제와 방법 등을 직접 계획하고 자율적으로 학습해, 다양한 탐구 주제를 가진 참여자들 앞에서 정기적으로 각자의 활동 결과를 발표하고 질의 응답을 하는 활동입니다. 저는 특히 2학년 때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기술의 전체적인 과정과 이해하는데 필요한 개념들을 다루고, 나아가 3학년 때는 뇌파 해석에 그래프 합성곱 신경망을 접목하는 방법론에 집중하면서 생활기록부에 진로 분야에 대한 제 역량을 잘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추천 도서를 선정하는 북슬랭, 특수반과 함께 수업하는 북공동체 등의 활동을 통해 생활기록부 자율, 진로 부분을 알차게 채울 수 있었고, 동아리도 유익하고 즐거웠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모두 모여 훌륭한 결과로 이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성적 우수 장학금을 동창회로부터 매년 소정의 지원을 받았는데, 학생 신분으로는 적지 않은 금액으로 학업에 매진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학생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이런 환경이 유지되고 발전되어 경동고등학교가 앞으로도 훌륭한 인재를 많이 배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편집자 주 / 경동장학회와 (재)경동발전장학재단은 재학생들의 전인적 교육을 위해 다양한 장학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그 결과, 2025년 대학진학률에 있어 좋은 성과를 얻었다.

독서탐구 · 사이언스챌린지 등 진로결정에 도움주는 활동에 감사

– 삼육대학교 진학 박상현



저는 2025년 경동고등학교를 졸업한 81회 박상현입니다. 저는 4.1이라는 아쉬운 성적임에도 경동고의 도움을 받아 학생부 종합 전형 S/W 인재 전형으로 삼육대학교 인공지능융합학부에 합격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고려대학교(세종), 연세대학교(미래)를 합격하였습니다. 제가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지원 및 합격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경동고등학교의 프로그램으로는 첫 번째, 독서 탐구 공동체(前 '독서멘토링')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친구들과 책을 선정하여 읽고 해당 책에 관해 생각과 느낌을 공유하고 토의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활동을 통해 제 진로를 찾을 수 있었고 희망 진로에 관한 책을 찾아 읽으며 부족한 지식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사이언스 챌린지입니다. 이과인 학생들을 위한 제2의 경동 아카데미로 여겨졌던 프로그램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북클럽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도서관에서 주최되는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학생들이 몇 가지를 도서를 읽고 요약한 후 토론을 나누는 프로그램으로 인문 팀과 이과 팀으로 나누어져 운영되었습니다. 제가 경동고에 입학하여 위의 두 가지 프로그램을 신청하였고 다행히 양쪽의 프로그램에서 활동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외에도 교과수행활동, 학습품앗이, 자기주도자율학습 등이 도움을 주었습니다. 경동고의 미래를 응원하며, 경동고 동문으로서 열심히 대학활동을 하며 더 도약하겠습니다.



경동인 이모저모

원고를 기다립니다.

여러 동문에게 알리고 싶은 회별 소식, 해외동문 소식,
모교 소식을 기사와 사진으로 보내주십시오.

총동창회 사무국 (02)744-1001

E-mail. kd7441001@naver.com

11회 동창회(회장 박기천) 송년모임

11회는 24년 11월 11일 도원 현대백화점 압구정 본점에서 25명이 송년모임을 가졌다. 11회는 11의 숫자적 의미를 살려 매년 11월 11일마다 송년 모임을 갖고 있다. 이날 박기천 회장은 “우리가 단 두명이라도 만날 수 있을 때까지는 만나자”라며 25년 11월 11일에 졸업 70주년 기념식을 갖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14회 동창회(회장 홍형기) 송년모임

14회는 24년 12월 19일 종각역 젊은이 거리의 고메식당에서 40명이 송년모임을 가졌다. 홍형기 회장은 참석한 많은 동창 덕분에 추억 속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며 감사와 함께 이번 모임이 각자의 삶에 새로운 활력이 되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15회 동창회(회장 조남직) 추계 야유회

15회는 24년 10월 30일 도봉산역 앞 옛골토성에서 40명이 추계 야유회를 가졌다. 15회는 오리 훈제 바비큐 식사 후 도봉산 등산길을 산책했다.



16회 동창회(회장 배치권) 총회 및 송년모임

16회 산악회(오봉산악회)는 24년 12월 15일 이수역 중식당 개화(開花)에서 총회겸 송년회를 가졌다. 이날 총회에서는 길돈식 현 회장의 중임을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16회 산악회는 회장 임기를 1년으로 하고 있었으나 33년 만에 처음으로 회장이 중임하게 된 것이다. 한편, 16회 산악회는 수도권 교직자를 중심으로 지난 30년간 매주 산행을 이어왔으며, 현재는 과천 대공원을 활용하고 있다.



17회 동창회(회장 신수균) 정기모임

17회는 교대 사거리 부근 오춘식(24회) 동문이 운영하는 큐당구장에서 26명이 6월 정기 모임을 가졌다. 17회는 여전히 20여 개의 소모임을 운영하는 한편 제8회 총동창회장배 당구대회에 홍기철 동문과 김영호 동문이 최고령 기수로 참가해 후배 동문들과의 경쟁과 어울림에도 손색이 없었다. 총동창산악회 정기산행에도 적극 참석하고 있는 17회는 언제나 늘 푸른 청춘이다.



20회 동창회(회장 임도빈) 졸업 60주년 행사

20회는 24년 10월 28일 양재동 소재 엘타워 8층 엘 하우스에서 100여명이 졸업 60주년 행사 및 가을 총회를 가졌다. 최성현 동문이 진행을 맡은 이번 행사에는 재외 동문들도 참가했고 이들을 포함한 일부 인원은 별도로 강원도 여행을 다녀왔다.



21회 동창회(회장 이은목) 걷기행사

21회는 24년 10월 15일 서울 서초구 양재시민의 숲에서 72명이 걷기 행사를 가졌다. 21회는 25년 4월 15일에 졸업 60주년 기념 및 팔순잔치를 양재동 소재 엘타워에서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1회는 25년 1월 23일 남부터미널 해담채에서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하례회를 개최했다.



24회 동창회(회장 오시정) 정기총회 · 송년모임

24회는 24년 12월 9일 서울 성동구 디노체 컨벤션에서 정기총회 겸 송년회를 가졌다. 24회는 24년 한해 동안 '여수-순천 1박2일 봄여행', '가을 크루즈 여행' 그리고 이번 행사까지 총 참가 인원 600여 명이 넘는 대규모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한편 오춘식 동문은 경동고 총동창회가 신설한 '경동사랑대상'의 첫 수상자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25회 동창회(회장 장형덕) 송년모임

25회는 24년 12월 5일 70여 명이 송년모임을 가졌다. 송철현 회장의 뒤를 이어 장형덕 동문이 신임회장이 되었다. 장형덕 신임회장은 수락 인사 후 2025년 동창회 활성화 계획과 포부를 발표하였다. 25회는 여러 소모임을 꾸준히 전개하며 지속적인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



26회 동창회(회장 이재웅) 송년모임 · 임원교체

26회는 24년 12월 17일 양재동 소재 엘타워에서 85명이 송년의 밤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서는 제23대 신임회장으로 이재웅 동문이 만장일치로 선임됐으며, 사무총장에는 노상운 동문이 지명됐다. 이재웅 신임회장은 “2025년으로 다가온 졸업 55주년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이날 행사는 홍준기 은사의 영상 건배사와 동문 공연, 성악 공연 등이 이어졌다. 한편 26회 동문회는 지난 10월 22일 강원도 정동진으로 가을 소풍을 다녀왔다. 47명의 동문들은 바다 부채길 걷기와 썬크루즈 전망대 관람, 하슬라 아트월드 방문 등의 일정을 소화했다.



27회 동창회(회장 홍준화) 정기총회

27회는 24년 12월 30일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56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동창회 회칙 개정안이 통과됐으며, 차기 회장으로 홍준화 동문이 선출됐다. 또한 노르딕워킹동호회와 뮤토피아 동호회가 우수동호회로 선정돼 포상을 받았다.



28회 동창회(회장 정동기) 동기사랑 골프대회

28회는 24년 10월 11일 춘천 스프링베일 GC에서 ‘동기사랑 골프대회’를 개최했다. 이종선 부회장이 주관한 이번 대회에는 부부동



반 12쌍 등 총 35명이 참가했다. 남자부 우승은 서주원 동문(74타), 여자부 우승은 강정희 씨(83타)가 차지했다. 한편 28회는 반창회를 비롯해 등산, 당구, 골프, 바둑 등 다양한 취미모임과 지역별 소모임을 운영하고 있다. 28회는 총동창회 체육대회에서 페널티킥 부문 3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28회는 지난 2월 3일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했다.

29회 동창회(회장 강덕환) 정기총회 · 송년모임

29회는 24년 11월 29일 서울 선릉역 인근 연회장에서 209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 및 송년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은사 5명과 동문 167명, 동문 부인 37명이 참석했다.

총회에서는 제26대 회장으로 강덕환 동문이 선출됐으며, 동기회 발전에 기여한 최서형, 김광중, 문희도 동문에게 공로패가 수여됐다. 한편 29회 동기회는 지난 8월 8일 도봉산에서 양교석 은사를 비롯한 62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리보양축제’를 열었으며, 10월 16일에는 77명의 동문과 가족들이 참여한 과천대공원 둘레길 걷기 행사를 진행했다.



30회 동창회(회장 정경원) 졸업 50주년 야유회

30회는 24년 10월 24일 졸업 50주년을 맞아 동문과 가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강원도 동해시 일원으로 기념 야유회를 다녀왔다. 참가자들은 묵호등대와 논골담길, 해랑전망대를 둘러보고 천곡동굴과 촛대바위 등 동해안의 주요 명소를 탐방했다.



32회 동창회(회장 이남현) 신년교례회

32회는 25년 1월 10일 디노체컨벤션에서 신년 교례회를 가졌다. 이번 행사에 1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남현 동문이 신임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임원진으로는 부회장 음철현, 총무이사 전용성, 재무이사 권혁천, 홍보이사 이장희 동문이 이름을 올렸고 오명석 동문이 감사를 맡게 되었다.



33회 동창회(회장 이우교) 가을소풍

33회는 24년 10월 18일 80명이 참석한 가운데 춘천 소양강 청평사와 삼악산으로 가을 소풍을 다녀왔다. 이날 경춘선 ITX청춘을 이용해 춘천에 도착한 일행은 청평사를 둘러본 후 삼악산 케이블카로 정상을 등반했다. 이어 11월 18일에는 1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 및 송년모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우교 회장과 김태석 사무총장을 주축으로 한 제15대 회장단이 선출됐다. 특히 이날 그동안 동기회장으로 수고했던 김상순 동문이 경동중고등학교 총동창회장 후보로 만장일치 추대 되었고 11월 27일 열린 '경동인의 밤 정기총회 및 송년회'에서 제36대 총동창회장으로 최종 선출됐다.



36회 동창회(회장 이길우) 산악회 신임 회장단 선출

36회 산악회(회장 황철해, 총무 정낙묵)는 1월 11일 신년 산행을 마치고 앞으로 2년간 수고해줄 신임 회장단을 선출하였다. 지난 2년동안 수고한 신이현 회장은 즐거운 2년의 임기를 마침을 아쉬워하면 총무였던 황철해 친구가 계속해서 산악회를 이끌어감을 감사하며 자리를 넘겨 주었다.

40회 졸업 40주년 기념식 성황

총동창회 발전기금 · 장학금 전달

40회 동창회(회장 노승구, 40주년 추진위원장 전승재)가 2024년 11월 23일 모교 체육관에서 졸업 40주년 기념식을 가졌다. 이날 기념식에는 40회 130명, 은사 여섯분, 고승환(31) 총동창회장, 김광중(29) 전총동창회장, 윤동열(33) 부회장, 김의진(35) 장학회이사, 이상민(35) 사무부회장, 한상준 교장, 선후배 10명 등 모두 150여 명이 참석했다. 40회 동창회는 40회 동창회 발전기금 1억 7백만원을 모금해 총동창회 발전기금 2천만원, 장학기금 5백만원을 전달했고, 기념식에서는 40회 동창회 공로자 20여명에 대한 시상, 은사님과의 대화 및 선물증정, 기념영상 상영, 축하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40회 동창회는



39회 동창회(회장 김홍선) 송년모임

39회는 24년 12월 13일 청계산 밑 평양식객의 레스토랑에서 21명이 송년회를 가졌다. 지난 6월에는 바이크 사랑 동호회, 둘레길사랑 동호회가 팔당에서 함께 모임을 가지는 한편 총동창회의 경동사랑 골프대회에도 참여했다.





2023년 10월 졸업 40주년 추진위원회를 결성하여 발전기금 모금을 시작했고, 2024년 1월부터 연탄 배달 봉사활동 2회, 마니산 등정, 추억의 성곽길 트래킹, 수학여행, 문화탐방, 동서남북 지회모임 및 반창회 개최, 골프회, 축구회, 등산회, 당구회 등의 동호회에서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며 40주년을 기념했다.

한편 40회는 25년 1월 6일 서울 신천동 하쿠나마타타 파티룸에서 고승환(31회) 전 총동창회장과 이상민(35회) 전 상근부회장을 초청해 감사 영상 현정식을 개최했다.



46회 동창회(회장 성창훈) 송년모임

46회는 24년 11월 23일 송년모임을 가졌다. 46회는 이날 참석자에게 46회 로고가 박힌 등

산용 손수건을 증정했으며 모든 동창에게도 전달할 예정이다. 강문영 총무는 사업 및 회계보고, 25년도 행사 공지에 이어 경동100원 사랑사업 참여를 독려했다. 성창훈 회장은 인사말에서 “25년 11월 8일 모교에서 졸업 35주년 기념식을 개최할 것”을 알리며 후배장학사업 및 동창회 활성화 방안 등 포부를 밝혔다.



천안지부(회장 40회 강은구) 송년모임

천안지부는 24년 12월 27일 연말 모임을 가졌다. 이날 모임에는 16회부터 46회까지 11명의 동문이 참가했다. 천안지부는 매 분기 평균 10여 명의 동문이 정기적으로 모임을 이어오고 있으며, 이날도 선후배 간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2025년에는 더 많은 동문들이 함께하는 천안지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전했다.



경기북부지부(회장 35회 이철한) 송년모임

경기북부지부는 24년 12월 18일 의정부시 금오동 플로렌스 의정부점에서 송년모임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25회부터 76회까지 총 31개 기수에서 동문과 가족 37명이 참석해 준비한 선물과 덕담을 나누며 한해를 마무리했다.



고양파주지부(회장 39회 이경초) 송년모임

고양파주지부는 24년 12월 송년모임을 개최했다. 이날 모임에는 13회부터 50회까지 동문들이 참석했다. 고양파주지부는 짹수월 둘째 수요일에 정기모임을, 매월 마지막 주 주말 오전에는 걷기와 식사 모임을 진행하고 있다. 정기모임 외에도 수시로 소모임과 동호회 활동이 이뤄지고 있으며 지부 활동 참여를 원하는 고양·파주 지역 동문은 김종진(50회) 총무(010-4750-1468)에게 문의하면 된다.



대전지부(회장 32회 음철헌) 송년모임

대전지부는 24년 12월 10일 대전시 중구 베니키아 호텔에서 송년회를 가졌다. 이번 송년회에는 17회부터 46회까지 동문 4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36대 총동창회장으로 선출된 김상순(33회) 신임 총동창회장이 참석해 총동창회 운영계획과 지부 활성화 지원을 약속했다. 여기에 청주지부 임동현(32회) 회장도 자리를 함께하여 충청지역의 단합을 다졌다.



남가주지부(회장 14회 이우철) 창립 50주년 기념 야유회



남가주지부는 2024년 9월 22일 창립 50주년 기념 야유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12회부터 35회까지 동문 64명과 가족을 포함해 총 122명이 참석했으며, 7명의 손자녀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어 12월 14일에는 LA 인근 몬테벨로 컨트리클럽 케이어트 캐년 연회장에서 정기총회 겸 송년모임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회원과 가족 등 80여 명이 참석했으며, 2024년 활동 보고와 개근상 시상이 진행됐다. 이우철(14회) 회장은 “창

립 50주년인 올해 골프대회 4회와 야유회, 장학기금 전달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했다”며 “일부 학교 동문회는 더 이상 송년모임을 갖지 않기로 하는 등 갈수록 동창들 간의 교류가 희박해지지만 경동 동창회는 오히려 더욱 활성화되고 있어 뿌듯하다”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1974년 남가주지부를 창립했으며, 88세의 나이로 2024년 1월부터 제31대 지회장을 맡고 있다.



뉴욕지부(회장 25회 신응남) 추계골프대회 성황리 개최

뉴욕경동동문회는 24년 10월 14일 퀸스 클리어뷰 파크 골프클럽에서 추계골프대회를 개최했다. 이 날 대회에는 동문과 가족 23명이 참가했으며, 시상식과 만찬은 중화요리점 ‘거성’에서 진행됐다. 대회 결과 챔피언에는 남상효(18회) 동문이 네트 78타로, 준우승은 이용웅(19회) 동문이 82타로 차지했다. 근접상은 남충우(24회)와 이용웅(19회) 동문이, 장





타상은 이재준(36회) 동문이 수상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김동우(20회) 회장이 신응남(25회) 동문을 후임 회장으로 추천해 참석자들의 동의를 얻었다. 이어 12월 1일 퀸스 후러싱 타운 DMOS 연회장 다이아몬드홀에서 송년회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 동문과 가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응남 회장은 25회부터 44회까지 5명의 신임 임원진을 소개했다. 최고 선배인 14회 권영길 동문의 격려사와 16회 공진열 동문의 견배사가 이어졌다. 특히 이번 송년회에는 총동창회 고승환(31회) 회장과 남가주지부 이우철(14회) 회장의 축하 영상이 전달됐다. 신응남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미국 이민생활이 길어질수록 모교에 대한 향수가 우리의 발걸음을 이끈다”며 “언어와 문화가 다른 미국 땅에서 이방인으로 살아왔지만, 모교에서 배운 교육의 힘과 동문들의 도움으로 성공적인 삶을 이어왔다”고 밝혔다. 뉴욕동문회는 2025년 행사 계획으로 춘계(5월), 추계(10월) 골프대회와 12월 7일 송년회 개최를 공지했다. 또한 남가주지부와 연계해 미주 경동동문회 골프대회를 추진하기로 했다.

타상은 이재준(36회) 동문이 수상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김동우(20회) 회장이 신응남(25회) 동문을 후임 회장으로 추천해 참석자들의 동의를 얻었다. 이어 12월 1일 퀸스 후러싱 타운 DMOS 연회장 다이아몬드홀에서 송년회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 동문과 가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응남 회장은 25회부터 44회까지 5명의 신임 임원

워싱턴지부(회장 32회 김명욱) 동문 · 가족 송년회 개최

워싱턴지부는 24년 12월 20일 버지니아주 애나데일 소재 한식당 ‘한강’에서 송년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동문과 가족 20여 명이 참석했으며, 최고 선배인 14회 한성수 동문의 견배사와 함께 뉴욕지부가 협찬한 와인으로 견배를 진행했다. 워싱턴 DC와 인근 버지니아, 메릴랜드주에는 현재 30~40명의 동문이 거주하고 있다. 워싱턴지부는 과거 매월 부부동반 모임을 열어 지역 내 타 동문회의 주목을 받았으나, 최근 몇 년간 활동이 다소 주춤했었다. 하지만 2023년부터 매월 정기모임을 재개하며 동문회 활성화에 나섰다. 김명욱 회장은 “정기 모임 활성화와 함께 연 1~2회 대규모 행사를 기획하겠다”며 “미국 내 타 지부와 총동문회와의 교류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워싱턴지부는 현재 40회 이후 젊은 동문들의 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워싱턴지부 연락처는 회장 김명욱(703-628-7425, augustinekim1@gmail.com), 총무 김선민(39회·703-618-0304, smkim0302@gmail.com)이다.



경동 총동창산악회(회장 정용식 31회) 2024년 정기산행 보고

경동 총동창산악회는 회별 산악회가 참여하는 경동의 대표적 동호회 모임이다. 2011년 첫 창립산행 이후, 매년 3, 6, 9, 12월 두 번째 토요일을 정해 분기별로 정기 산행을 이어오고 있다. 지난 2024년 3월에는 제44차 시산제를 겸한 마니산 정기 산행에 동문 183명이 참여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6월 제 45차 금수산 정기산행에서는 비가 내리는 굳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97명의 동문들이 동참했으며, 9월 제46차 칠보산 정기산행에는 103명, 12월 제47차 계룡산 정기산행에는 92명이 참여하였다. 많은 동문들이 평소 회수별 산행을 통해 건강을 관리하고, 선후배 동문들과 함께 산행하는 총동문 행사에 참여하면서, 경동인으로서의 유대감과 긍지, 우의를 다지는 뜻깊은 행사로 이어가고 있다. 신임 회장단(회장 박영우 33회)은 2025년 새해에도 동문들의 건강을 기원하며, 총산 정기산행에도 많은 동문들이 변함 없이 참여해 주기를 기대한다.

한편, 총동창산악회 기획 산행으로, 매월 셋째 토요일에 경춘선 기차를 타고 경춘선 주변 유명한 산들을 탐방하는 산행을 하고 있다. 2024년에는 춘천과 그 인근의 오봉산, 용화산, 삼악산, 팔봉산, 금정산, 검봉산, 대룡산 등을 다녀왔으며, 2025년에는 가평과 그 인근 유명산을 탐방할 예정이다. 관심있는 동문들은 언제든 환영한다.



경동동문산악회(회장 우진호 41회) 송년모임 및 주요활동 보고

경동동문산악회는 24년 12월 13일 경동고 인근의 '희객' 식당에서 송년모임을 가졌다. 다사다난한 연말분위기에 많은 회원이 모이지는 못했지만, 정하선(23회)동문 외 20명의 졸업선배와 1학년 재학생 2명, 2학년 재학생 7명, 교사 2명 등 총 32명의 동문과 선생님들이 함께 하였다. 1학년 재학생인 83회와 23회 최고참 선배 동문의 나이 차는 60년이나 되지만, 동문이라는 이유만으로 화기애애하고 즐거운 시간을 함께 즐길 수 있었다.



2024년 경동동문산악회 주요 활동 보고		
합동(4개 고교) 등반 동아리 연합 활동		
활동명	합동 등반 안전 교육	볼더링 대회
일시	2024.7.13(토)	2024.10.19(토)
장소	불암산 '산머루 아래 암장'	중동고 PT 암장
동참 학교명	광운고, 양정고, 중동고	
내용	산행, 암벽등반의 이론 및 실기교육	로프 없이 바위덩어리를 오르는 대회로, 경동고 외 3개교 합동 참여
참석 인원	지도교사 5명, 졸업생 10명, 재학생 9명	지도교사 6명, 졸업생 15명, 재학생 6명 그 외 심판과 졸업생 회원 다수 참여

경동회(회장 김완식 32회) 2024년 납회 행사

경동회는 24년 11월 2일 서울 센추리21에서 2024년도 납회행사를 하였다. 15팀이 참석하고, 신항철(16회)동문부터 유원일(66회)동문 까지 동문회원들과 배우자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이번 행사는 경동회 회장 김완식 동문, 장성각, 박재준, 정우영 동문 등, 여러 동문의 찬조로 풍성한 납회가 되었다. 2025년 2월 18일에는 100여 명의 회원과 가족이 모인 가운데 신년회를 개최했으며, 2025년 분기별 모임 일정은 아래와 같다.



2025년 경동회 행사 일정표					
	신년회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날짜	2.18(화)	4.12(토)	7.5(토)	9.6(토)	11.1(토)
장소	서리벌 한정식 서초본점(2.18/화) / 센추리21(1~4분기 라운딩)				

동건회 송년회(회장 황성열 34회) 송년모임 개최

건설 관련 동문 모임인 '동건회'는 24년 12월 18일 서울 서초동 '서리벌' 한정식 식당에서 초대 회장을 역임한 이경희(14회)동문을 포함한 40여 명의 동문이 모여 송년회를 개최하였다. 제10대 회장인 황성열

(34회) 회장의 개회사로 2024년을 마무리하는 송년회가 시작되었다.

부동산 건설 경기의 장기 침체 속에서도 동건회 회원들은 런치토크, 도시산책, 골프, 세미나 등 다채로운 소모임을 운영하며, 회원들간 친목 도모는 물론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특히, 상·하반기 1회씩 진행하는 도시산책 소모임은 박성우(34회), 백광윤(40회), 문재범(40회) 동문 주관으로 도심지 건축물 및 고궁 등을 탐방하는 행사다. 가족까지 참여하는 등 회원들의 반응이 아주 좋아 2025년도에는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중국) 도시산책 행사를 계획하고 있다.



CU경동(회장 강효현 36회) 송년회 및 회장 이취임식 개최

CU경동은 경동 전산인 모임 '동산회'로 시작하여 IT 벤처비즈니스모임으로 발전해 온 동호회다. 요즘은 스마트폰이 모든 생활에 중심 역할을 하는 시대여서, 스마트폰에 모든 Biz에 IT를 적용 및 연계하고 활용하지 않을 수 없기에, IT를 활용하는 모든 비즈니스영역에 종사하는 경동 동문들이 참여하여 유익한 정보를 공유하고 친목을 다지고 있다. CU경동은 24년 12월 17일 '서라벌' 한정식 서초본점에서 송년모임을 겸한, 신구 회장 이취임식을 개최했다. 전임 임순범(33회)회장은 2020년 취임하자마자 코로나로 활동을 못하면서 5년간 봉사하였고, 강효현(36회)동문이 신임회장으로 취임했다. 강효현 신임회장은 CU경동이 현직에서 활동하는 청장년 동문들을 중심으로 보다 결속력이 강한 알찬 조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동바이크(회장 맹장호 18회) 2024년 활동 소개

경동바이크의 김동하(27회) 총무와 김용완(27회) 동문은 2024년 6월, 21일간 베네룩스 3국을 캠핑카에 미니벨로를 싣고 여행했다. 11월에는 베트남 하노이를 거쳐 하장성까지 600km를 차로 이동하여, 9일간 자전거 여행을 했다. 중국과 맞닿은 소수민족 마을을 다니며 1960~70년대의 우리나라를 떠올리고, 큰 마을을 다니면서 1980년대의 대한민국이 생각났다고 한다. 하노이 거리에서는 우리의 1990년대를 연상했다. 소수민족마을을 지날 때마다 반갑게 맞아주는 어린이들과 주민들이 아직도 눈에 생생하다는 두사람. 2025년에도 경동바이크의 여정을 많은 동문들과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관심있는 동문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



경사회(회장 이석원 41회) 2024년 활동 보고

2024년 경사회는 모교 사진반 1학년 7명과 2학년 5명 총 12명과 2년간 사진반을 담당한 심준보 선생님과 함께 3월 15일부터 12월 13일까지, 13회의 모교 CA 활동과 2회에 걸친 DDP(동대문디지털플라자)와 창경궁 출사활동을 했다. DSLR카메라와 사진에 익숙지 않은 재학생들이 기본적인 카메라 조작법 및 흑백 FILM 현상과 인화를 배우는 시간이었고, 졸업생과 재학생의 유대를 다지는 한해였다. 교내에서 카메라에 대한 기초 지식을 배운 재학생들은 경사회 25기 정재윤(47회)동문, 경사회 27기 이창준(49회)동문과 함께 한 DDP 출사를 통해 직접 체험



해 보고, 사진반 암실에서 자신이 촬영한 흑백 필름 현상과 인화를 체험해보면서 전에는 알지 못했던 사진에 대한 매력을 알아가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1년간 노력의 결실을 11월 1일 '경동축전'에서 사진전시를 통해 사진반 이외 친구들에게 보이는 시간을 갖고, 2024년 경동사진반과 경사회 활동을 마쳤다.

12월 13일 마지막 CA 시간에 1년간의 소회를 후배들과 나누며, 2025년 계획으로 드론 촬영과 스

튜디오 촬영, 그리고 더 많은 출사를 약속하며 기쁨과 아쉬움을 나누었고, 사진반 전통대로 중국집에서 짜장면을 같이 나누어 먹으며 2024년을 마무리하였다. 경사회 10기 우원식(32회)동문이 국회의장으로 정치 활동을 하고 있고, 경사회 55기 류기찬(77회)동문이 한국일보 인턴 사진 기자로 다방면에서 활발한 취재 활동을 하고 있다.

앞으로도 '경사회'는 이석원 회장 이하 전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 아래, 정규 CA 시간과 체육대회는 물론 졸업생과 재학생들의 지속적인 교류 확대에 노력할 것이다.

경탁회(회장 김용인 29회) 송년 경기 및 송년회

경동탁구모임 경탁회는 24년 12월 22일 추운 날씨에도 김진원(15회)동문을 비롯, 목발에 의지하면서도 심판위원장을 자청해주신 황광성(21회)동문 외 여러 동문들이 자리한 가운데 열띤 경기와 송년회를 진행했다.

경기가 끝나갈 무렵, 김상순(33회) 36대 총동창회장과 윤동열(33회) 상근부회장이 참석하여 격려의 말씀을 하고, 추가로 귀한 상품을 행운상품으로 찬조해 주어 행운의 기회가 배가되었다. 2024년 마지막 정기 모임인 이날 총 36명이 참석하여 단식 및 복식경기를 벌인 결과, 박덕남(34회)동문이 우승을 차지했고, 이은모(29회)동문이 준우승을 거머쥐었다. 복식에서는 원두희(29회), 이성철(32회)조가 우승을, 허영빈(21회), 김연재(29회)조가 준우승을 차지했다.

뒷풀이 장소에서 정기총회를 진행하여, 현 회장이 1년간 더 회장을 연임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경탁회는 2018년 12월 창립이래, 펜데믹 기간 외에는 쉼 없이 이어져 왔다. 2024년 한해에도 한 결 같이 경탁회에 큰 애정을 보내주신 선후배 회원동문들께 감사드리고, 2025년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





동금회(회장 배상환 34회) 송년회 개최

경동 금융인 모임인 동금회는 24년 12월 17일 26명의 동문들이 참석해 송년모임을 가졌다. 전현기(43회) 동문이 우리은행 본부장에서 우리금융지주 부사장으로 영전한 기쁜 소식을 전하였다. 2025년 정기모임 일정은 아래와 같다.

동금회 2025년 정기모임 일정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날짜	3.25(화)	6.24(화)	9.23(화)	12.16(화)
장소		서라벌 한정식 서초본점(첫 모임 예정 장소)		

영금회(회장 차상용 40회) 송년회 개최

젊은 금융인 모임 영금회는 24년 11월 29일 30여명의 동문들이 참석한 가운데 송년회 모임을 가졌다. 부동산 관련 자산운용사와 자산신탁회사에서 경력을 쌓고 있는 엄현태(65회)동문과 최연태(66회)동문이 새로운 멤버로 참여하게 되어 더욱 즐거운 자리가 되었다. 지난 모임에 정경수(64회)동문이 참여하게 된 이후, 더욱 젊어진 영금회 모임으로 2025년을 열 수 있게 되었다. 더욱 젊은 모임이 될 2025년 영금회 정기 모임은 아래와 같다.



영금회 2025년 정기모임 일정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날짜	2.26(수)	5.28(수)	8.27(수)	11.26(수)
장소		반포 세빛 퀴진 뷔페(첫 모임 예정 장소)		



추억을 나누는 뜻 깊은 시간이었다. 총동창회의 양말을 비롯, 떡, 와인, 쌀, 샴푸, 수건, 과일, 산삼 및 찬조금까지 다량의 후원품으로 모두가 행복을 한 아름 챙겨 귀가 할 수 있었던 풍족하고 희망에 찬 행사였다.

청요회(회장 김천연 37회) 송년회 개최

경동 도서반 출신 모임인 청요회는 24년 12월 14일 서울 마포 공덕역의 '참나무 본가' 식당에서 송년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청요 5기(19회) 박준기, 조정환 동문부터 청요 54기(68회)까지 폭넓은 연령대의 43명(배우자, 자녀 포함)의 인원이 한자리에 모여서 연중 주요행사 중 하나인 송년회를 성황리에 진행하였다.

참석자 모두 새해 인사와 함께 덕담과 격려의 말과

경동기독인대회(회장 장우천 28회) 제3회 대회 및 장학금 수여

경동기독인회는 24년 10월 19일 제3회 경동기독인대회를 모교 멀티미디어실에서 개최하였다. 3회를 맞은 경동기독인대회에는 모두 83명의 동문들과 재학생들이 참가하였으며, 7회 동문부터 모교 1학년 재학생 동문까지 경동기독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 기쁨과 감사의 잔치였다. 1부, 2부 및 3부로 진행된 제3회 경동기

독인대회는 이재민 목사(30회)의 사회로 1부 예배를 드렸는데, 재학생이 인도한 경배와 찬양을 시작으로 오동희 동문(33회)의 대표기도에 이어 정인욱 목사(30회)의 '남길 일, 이어갈 일'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었다. 재학생들이 준비한 찬양과 특송, 김승모 동문의 클라리넷 연주는 감동과 은혜를 더해 주었으며, 김승광 목사가 인도한 모교, 환자동문과 가족들을 위한 합심기도와 김명완 목사(28회)의 축도로 1부 순서를 마쳤다.



강신이 장로(28회)의 사회로 진행된 2부 순서에서는 축사와 친교의 시간을 가졌는데, 모교의 총동창회 수석부회장을 맡고 있는 오준근 부회장(31회)과 모교의 교감으로 근무하는 최중호 교감의 축사가 있었으며, 기별 기독인회 소개와 인사에 이어 28회 중창팀의 특송으로 축하의 분위기가 고조되었다.

3부에 진행된 정현수 동문(30회)의 간증은, 치유와 회복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눔으로써 참석한 모든 경동 기독인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이번 경동기독인대회에서는 재학생에 대한 장학금 수여식을 가졌는데, 모교의 기독학생으로서 학교생활과 신앙생활에 모범을 보여준 남궁솔(2학년/학생회장), 한보석(1학년/부회장), 한현석(1학년)과 박민준(1학년) 등 네 명의 학생들에게 30만원씩의 장학금을 수여하여, 재학생 후배들을 향한 '경동기독인회 비전' 구현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경불회(회장 이추석 23회) 부석사 등 사찰 순례

동문 불자 모임 경불회는 24년 11월 24일 제21차 산사순례를 다녀왔다. 40명의 회원이 동참한 가운데 경북 영주 소수서원과 부석사, 강원도 영월 김삿갓 문학관과 묘소 등 유적지를 순례했다. 이날 순례는 문화재 전문가 문재범(40회) 동문의 자세한 해설로 더욱 내실 있게 진행됐다. 경불회는 지난 10년간 회장을 맡았던 전우희(26회) 동문에 이어 이추석(23회) 동문을 회장으로 추대했다.



11회 채영복 동문 과학기술유공자 지정

채영복(11회) 동문이 24년 12월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해 과학기술유공자에 지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채영복 동문과 불소화학분야 세계적 권위자인 고(故)박달조 한국과학원(현 한국과학기술원) 2대원장 등 6명을 유공자로 신규 지정했다. 과학기술 유공자는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에 이바지한 과학기술인을 지정해 예우하고 지원하는 제도로 과학기술인이 존중받는 사회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7년간 총 85명의 유공자를 지정했다. 채영복 동문은 정밀화학 분야의 혁신을 이끈 과학자이자 관련 행정가로 평가 받는다. 의약품, 농약 성분 국산화와 정밀화학

산업 기반을 구축하고, 물질특허 시대를 대비한 신물질 창출 연구체제를 확립하며,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설립 등 과학기술 진흥정책을 주도했다. 서울대



학교 화학과를 나와 독일 뮌헨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제4대 과학기술부 장관, 원정연구원 이사장 등을 역임했고 국민훈장 동백장과 3.1 문화상, 청조근정훈장, 프랑스 레지옹도뇌르 훈장 등을 받은 바 있다.

29회 최덕조 동문 헌혈 221회 11만ml 기록

최덕조(29회) 동문이 헌혈 정년인 만 70세까지 총 221회의 헌혈을 수행했다. 보통 1회 헌혈량 500ml를 기준으로 총 11만ml를 상회하는 양이다. 이것은 500cc 맥주 221잔, 박카스 1105병으로 결코 적지 않다. 보통 전혈(혈액의 모든 성분을 헌혈하는 행위) 기준으로 한 달에 한 번 헌혈을 하는데 18년 4개월이 걸린 셈이다. 분기에 한 번 한다고 가정하면 50년 넘게 걸리는 횟수기도 하다. 헌혈은 시간과 정력을 타인을 위해 기부하는 인간미 넘치는 진정한 봉사라 할 수 있다. 29회 동문들은 '비울수록 새것으로 더 많이



'채워진다'는 진리를 몸소 실천하는 최 동문에게 아낌없는 존경과 격려를 보내고 있다.

35회 이상민 동문

10년 동안 사무총장(사무부회장)으로 총동창회 발전 기여

지난 10년 동안 총동창회의 행정과 살림을 담당했던 이상민(35회) 사무부회장(사무총장)이 총동창회 사무국을 은퇴했다. 총동창회장과 회장단을 보좌하고 동창회와 장학회의 사무를 책임지며 동문간의 유대를 강화해야 하는 사무총장의 역할은 중요하고 그만큼 부담감도 크다. 그러나 이 동문은 특유의 친화력과 추진력으로 총동창회 사무국 업무를 진행하고 동문들의 모임과 각종 행사를 빛나게 했다.

그는 2012년 24회 남상태 동문이 제30대 총동창회장에 취임할 때 사무차장으로 사무국에 입성하여 만 10년을 사무국에서 근무했다. 그는 연예인이다. 경동 총동창회 행사에 한 번이라도

참여해 본 사람은 그를 잘 알 것이다. 사무총장을 오래 하기도 했지만 그의 스타성 때문이다. 춤과 노래는 기본이고 진행 솜씨도 좋다. 애교심과 충성심도 넘

치고 센스도 좋다. 그는 특히 후배들의 동창회 결성에 심혈을 기울였다. 사무국의 업무이기도 했지만 그의 소망이기도 했다. 그의 진심을 선배들은 신뢰하고 후배들은 따른다. 그가 사무국을 떠난다고 그의 오지랖이 줄어들진 않을 것이다.



50회 조정권 동문

모교 야구감독 취임 “경동 야구의 가치 높일 터”

경동의 자긍심, 경동의 자랑 야구부에 동문 감독이 취임했다. 조정권(50회) 감독이 그 주인공. 졸업 30년 만에 모교 야구부의 사령탑으로 돌아와 후배들과 ‘새로운 역사’를 다짐하는 조정권 동문은 “오랜 역사와 뜨거운 열정의 자랑해 온 경동 야구의 가치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면서 “모교 야구팀을 이끌어 갈 책임을 맡은 게 영광스럽고 설레지만 어깨가 무거운 것도 사실”이라고 털어 놓는다. 그리고 “총동창회의 아낌없는 지원과 동문 여러분의 열정어린 관심이 경동 야구의 가치를 이어오는 것이며 이에 부응하는 새

로운 시대를 열어 보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모교 졸업 후 야구 지도자로서의 길을 걸어 온 조정권 동문은 “감독으로서 동문으로서 함께 성장하며 스포츠

정신과 팀워크의 가치를 배우며 경동 야구의 역사를 빛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며 변함없는 응원을 당부했다.



박철(23회) 동문

아시아 최초 스페인 예네상 수상



박철(23회) 동문(전 한국외대 총장)은 지난해 스페인 세르반테스 문화원재단으로부터 '올해의 예네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11월 5일 마드리드 아랑후에스 왕궁에서 펠리페 6세 스페인 국왕이 직접 이상을 시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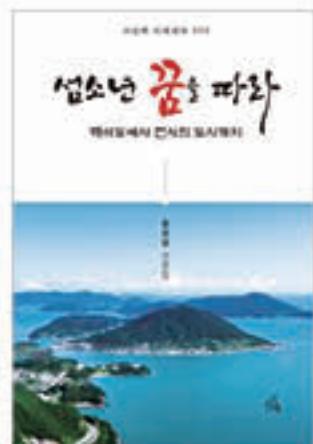
2021년 제정된 예네상은 스페인 세르반테스 문화원이 스페인어의 국제적 확산과 연구에 기여한 외국인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이항래(24회) 동문

사진집 '여백' 출간



이항래(24회) 동문이 지난해 8월, 사진집 『여백』을 출간했다. 『여백』은 드러냄이 아닌 '드러남'에 주목한 사진집이다. 사진가의 눈은 가치치기를 한 앙상한 나무에서 이야기와 아름다움을 찾아낸다. 군더더기 없이 놓여 있는 나뭇잎, 가지들은 오브제처럼 그 자체로 아름답다. 사진과 나란히 놓인 사진가의 코멘트와 간결한 사진은 명상에 잠기듯 감상하기 좋다.



임길성(24회) 동문

모교에 『섬소년 꿈을 따라』 도서 기증

임길성(24회) 동문이 24년 9월

27일 모교를 방문하여 자전적 수필집인 『섬소년 꿈을 따라』 도서를 기증했다. 임길성 동문은 한양대학교 건축공학과를 졸업했고 미국 유학 후 LA에서 거주했다.

조용필(25회) 동문

신규 앨범 '20' 발표



영원한 국민가왕 조용필(25회) 동문이 24년 10월 22일 스무번째 앨범 '20'을 발표했다. 19집 '헬로' 이후 11년 만의 정규앨범이다. 20집 앨범 발매 기념 콘서트는 4월 5일 오후 6시 대전컨벤션에서 개최한다.



최서형(29회) 동문

『만병의 근원, 담적증후군』 발간

최서형(29회) 동문이 24년 10월 『만병의 근원, 담적증후군』이란 책을 발간했다. 이 책에서 원인 미상 신경성 위염, 이 책은 해결되지 않았던 소화 장애로 평생을 고생하던 많은 환자들과 원인 미상으로 만성 질환을 앓는 환자들의 문제를 풀 치료의 열쇠이자, 단초를 제공하는 의료계의 놀라운 혁명을 꿈꾼다는 평가를 받는다. 최서형 동문은 위담병원장이자 올림픽선수촌 주치의로 활동하고 있다.



고경진(29회) 동문 제주상공대상 수상

고경진(29회) 동문이 24년 11월 29일, 제주상공회의소 창립89주년 기념 제32회 제주상공대상 시상식 및 송년회에서 경영부문 제주상공대상을 수상하였다. 제주상공대상은 지역사회 및 상공업 육성발전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상공인을 부문별로 선정하는 상이다. 고경진 동문(한국지엠 제주판매(주) 대표이사)은 경동제주지부 회장으로 동문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김대휘(30회) 동문 한국법률문화상 수상

김대휘(30회) 동문이 대한변호사협회 한국법률문화상운영위원회에서 제55회 한국법률문화상 수상자로 결정되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2024년 7월 19일 공고했다. 김대휘 동문은 경동중고등학교총동창회 제 34대 회장을 역임했다.

권오철(31회) 동문 알바트로스 기록



어려운 알바트로스를 기록했다. 알바트로스를 기록

권오철(31회) 동문이 24년 6월 13일, CTS기독교TV가 주최한 골프대회에서 생애 한번 기록하기

한 장소는 실크밸리CC 실크코스 1번홀이었다. 권오철 동문은 2023 경동사랑 골프대회장으로 성공리에 대회를 치룬 바 있다.

김우승(32회) 동문 삼성꿈장학재단 이사장 선임



김우승(32회) 동문(한국공학교육인증원 원장)이 24년 12월 20일, 삼성꿈장학재단 신임 이사장으로 선임됐다. 김우승 동문은 한양대학교 총장,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 민간 위원장을 역임했다.

최찬용(37회) 동문 광주도시관리공사 사장 취임



최찬용(37회) 동문(전 용인도시공사 사장)이 24년 12월 제10대 광주도시관리공사 사장에 취임했다. 최찬용 동문은 서울시립대를 졸업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책사업기획처장, 고양사업본부장 등 주요 요직을 거쳤다.



박학기(39회) 동문 행안부 장관 표창 수상

박학기(39회) 동문이 24년 9월 25일, 공군호텔에서 열린 '직능인의 날 선포식'에서 음악을 통해 국민소통에 기여한 공로로 행정안전부 장

관 표창을 수상했다. 오랜 기간 포크 싱어송라이터로 활약하며 2022년부터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부회장을 역임하고 있는 박학기 동문은 AI시대 창작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주도하며 음악 행정가로서의 활약도 이어가고 있다.

김원평(40회) 동문 모교 등에 방한 모자 기증



증했다. 24년 11월 18일 모교에 613개, 11월 27일 총동창회 경동의 밤 행사에 500개, 11월 23일 40회 졸업40주년 행사에 180개 등 총 1,300개의 방한 모자를 기증했다. 김원평 동문은 40회 동기회 초대 총무를 지냈고 매년 40회 동기회를 비롯해서 총동창회의 주요행사에 모자, 넥워머 등 방한용품을 기증하고 있다.

전승재(40회) 동문 야구후원금 기부



회 부회장 및 경동회, 동금회의 총무를 맡아 동문 간 유대강화에 힘쓰고 40회 동기회에서 졸업40주

년 준비위원장을 맡아 행사를 기획하는 등 총동창회와 동기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조성배(40회) 동문 2025년도 한림원 정회원 선출



조성배(40회) 동문이 한국과학기술한림원(원장 유옥준) 2024년 제2회 정기총회에서 2025년 정회원에 선출됐다. 한림원 정회원은 과학기술분야에서 20년 이상 활동하며 독창적인 연구 성과를 내고 해당 분야의 발전에 현저히 공헌한 과학기술인들을 3단계에 걸친 엄정한 심사를 통해 선출한다. 2025년 한림원 정회원은 5개 학부 총 36명이며 조성배 동문은 공학부(12명)에서 선출됐다.

김영락(41회) 동문 LG전자 사장 승진



김영락(41회) 동문이 LG전자 2025년 정기 임원인사에서 사장으로 승진했다. 김영락 동문은 중앙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워싱턴대에서 MBA를 취득했다. 1991년 LG전자에 입사한 김 동문은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치며 마케팅과 영업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았고 2022년부터 한국영업본부장으로 LG전자의 국내영업을 총괄하였다.

김동우(41회) 동문 국립제주박물관 관장 임명



김동우(41회) 동문이 24년 7월 국립제주박물관장에 취임했다. 김동우 동문은 1997년 국립중앙 박물관 유물관리부 업무를 시작으로 줄곧 국립중앙박물관에 근무하며 한국박물관 개관 100주년 기념사업추진팀에서 업무를 담당하기도 했다. 그는 발해 관련 논문을 많이 발표했으며 최근 발표 논문으로 <문헌으로 본 조선시대 대형 화약무기>가 있다.



이진동(42회) 동문 대검찰청 차장검사 임명

이진동(42회) 동문(대구고검장)이 24년 9월 19일, 대검찰청 차장검사에 임명됐다.

김한영(43회) 동문 한국종합기술 사장 임명



김한영(43회) 동문이 24년 1월 2일, 한국종합기술 제27대 사장으로 취임했다. 김한영 동문은 1993년 한국종합기술에 입사하여 상하수도 기술사로서 약 25년간 근무하였다. 2018년 종업원지주회사 전환 후에는 임직원들이 선출한 첫 사내이사로 활동했다.



전현기(43회) 동문 우리은행 부사장 승진

전현기(43회) 동문이 1월 3일, 우리금융지주 성장지원부문장(부사장)으로 승진했다. 전현기 동문은 우리은행 프로젝트금융부장, 수송동 대림금융센터장, 투자금융본부장을 역임했다.



최동환(64회) 동문 LG 트윈스에서 KT로 이적

최동환(64회) 동문이 프로야구 LG에서 KT로 이적하여 2025년 새롭게 출발한다. 최동환 동문은 2009 신인 드래프트 2차 2라운드 전체 13위로 LG에 입단하여 2024년까지 16년간 LG 원클럽맨으로 활약하며 통산 344경기 10승 6패 4세이브 16홀드 평균자책점 5.11의 성적을 기록했다.

경동고 야구부 졸업생 이태훈 LG 트윈스 4라운드 지명 입단



경동고 야구부 3학년(81회) 유격수 이태훈 선수가 2025 KBO 신인 드래프트 4라운드 전체 40순위로 LG 트윈스에 지명되었다. 이태훈 선수는 2025 시즌 신인 처음으로 2024 울산-KBO Fall League 엔트리에 포함되었고, 10월 16일 울산 NC 다이노스전 첫 타석 안타를 기록했다.

친구들에게 전하는 편지...

글:고승환(31회) 그림:김범수(80회)



이 모든 것들 함께 해준 친구들께
머리숙여 감사의 큰 절을 올립니다



임무 수행중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친구들에게 부담과 상처를 준 일도
있겠지만..



넓은 마음으로 이해를 구합니다



내 고마운 친구들.....



제 35대 총동창회장 고승환(31회)

한상준 경동고등학교 제29대 교장 취임 인사말씀

“소통·협력으로 최상의 교육공동체 지향”

경동고등학교 29대 교장 한상준입니다. 전통의 명문 공립고등학교에 부임하게 되어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발령 공문을 처음 보고는 무척 당황했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의 무보직 장학관은 중학교 교장으로 임명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일반계 고등학교에 그것도 명문고등학교 발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1968년 전라북도 순창에서 태어나 중학교까지 다니고, 전주에 있는 전라고등학교를 졸업하였습니다. 어려서부터 선생님을 꿈꾸었던 저는 단국대학교 과학교육과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목표로 했던 대학이 아니지만 출신 대학보다는 실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였고 교사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였습니다. 그리하여 1994년 졸업하면서 서울시교육청 임용고사에 합격하여 교사가 되었습니다.

교사가 되어서는 과학교육을 위해 각종 연수, 과학동산, 과학축제 등에 운영자로 또는 지도교사로 적극 참여하였으며 12년간 서울중등교육평가연구회에 총무로 각종 연수 및 연구활동도 했습니다. 학교에서는 어떤 업무든 마다하지 않고 ‘내가 일이 많이 하고 있고 누군가 일을 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그 당시 부장 선생님의 말씀에 한 번도 힘들다고 생각해 보지 않고 매년 2월에는 새 학년 준비로 저에게는 봄방학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덕분으로 2005년 1달간 미국 화학

교사 연수도 다녀오고 2011년 경제시찰단으로 중국에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매사에 묵묵히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면 반드시 좋은 결실이 있는 것 같습니다.

20여 년의 교사 생활을 하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서울교육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교육전문직 시험을 보게 되었고 2013년 9월 서울특별시교육청 과학전시관에 교육연구사로 전직하여 본격으로 교육행정가로 융합과학체험마당을 기획·운영하고 영재교육센터 운영, 전국학생발명대회 운영, 융합과학교육자료 개발 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3년부터 시작된 자유학기제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업무지원으로 하다가 2015년 서울시교육청 교육혁신과에 정식으로 발령을 받아서 서울형자유학기제의 기틀을 만들고 현장 안착과 전면 시행을 준비하였습니다. 서울형 자유학기제 운영 매뉴얼을 만들고, 전국에 유일하게 서울에서만 주제선택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개발자들과 함께 방학이면 20여개의 연수 강좌를 만들어 교사 연수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혁신학교와 자유학기제를 연계하는 중2 혁신자유학년제를 기획·운영하였습니다. 그러다 2017년 9월 서울특별시 동부교육지원청으로 전보 되어 문화예술팀장으로 근무하고 장학사 생활을 마쳤습니다.

2019년 9월 경복고등학교 교감으로 전직하여 3년 6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소통과 자발적인 참여로 모두가 즐거운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으면 교직원 모두가 적극적으로 호응하여 평온하고 즐거운 교감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보다 적극

적인 교육행정을 펼치고자 장학관으로 전직을 신청하여 2022년 9월 서울시 강남서초교육지원청 교육 협력복지과장으로 전직하게 되었습니다. 과장으로 교육복지, 교육비 지원, 돌봄교실, 늘봄학교, 방학 후학교, 미래교육지구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고 소속 기관으로 지역교육지원센터, Wee센터, 지역교육복지센터를 운영하였습니다.

2024년 9월 명문 경동고등학교에 부임하여 저는 '학생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을 갖춘 창의적 인재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고, '교사들이 전문성과 열정을 바탕으로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며 보람과 즐거움을 느끼는 교육을 실현하도록 지원'하며, '학부모들과는 열린 소통과 협력을 통해 가정과 학교 간의 교육 연계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경동고등학교는 '모든 교육 공동체가 함께 성장하며, 학생들의 행복한 미래와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는 학교'를 지향하고자 합니다.

제81회 졸업식 다양한 진로와 꿈을 키웠기에 더욱 빛났던 순간들...

3년 동안 경동고에서 꿈을 키워 온 81회가 정든 교정을 뒤로 하고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한 졸업식을 2025년 2월 7일 동인관에서 가졌다.

김상순 총동창회장(33회), 최동욱 장학회장(33회), 오성환 경동고 학교운영위원장(34회), 김태빈 사무총장(40회)과 성북구 김영배 국회의원이 내빈으로 참석한 가운데 가슴 뭉클한 졸업식이 진행됐다.

170명의 졸업생 한사람 한사람에게 졸업장이 수여될 때마다 개성 넘치는 MZ세대의 재치있는 자기 표현은 졸업식장을 축제처럼 만들었다.

총동창회에서는 동창회장상, 장학회장상, 학교운영위원장상을 수여했고 김상순 총동창회장은 졸업축사를 통해 "양심, 신념, 책임과 같은 선(善)의 가치를 바탕으로, 자유 의지를 통해 스스로의 행동과 결정을 통제하고 조절할 줄 아는 멋진 청년으로 성장하기를 기원한다"며 "경동고의 동문이라는 자긍심과 명예를 가슴 속에 깊이 새기길 바란다"는 당부의 말을 전했다.



제81회 회장을 했던 채승민 군은 대표로 김상순 총동창회장 앞에서 총동창회 입회선서를 하였다. 170명의 졸업생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함으로써, '제81회 동창회'는 이날 정식 발족되었다.

섬길 걷기 / 화성 국화도

‘풍요로운 고을’ 화성이 품은 마지막 유인도

글·사진/ 전부순(35회)

경기도 화성(華城)은 정조가 수원부읍치와 현릉원을 보호할 성곽을 둘러보며 장자(莊子)의 천지편(天池編) ‘화인축성(華人祝聖)’ 고사를 신도시 지명으로 따왔다. ‘요임금 같은 성인이 덕으로 다스리는 곳’이라는 의미와 ‘부와 장수, 다자를 바라는 여민동락(與民同樂)’의 뜻을 지닌 고장이다.

‘풍요로운 고을’ 화성시에는 모두 41개의 섬이 있고, 유인도는 5곳이었으나 시화방조제가 건설되면서 우음도와 형도는 육지가 됐다. 국화도는 화성이 품은 마지막 유인도이자 경기도의 5대 보물섬으로 일컬는 매력적인 곳. 완벽한 엑소더스(exodus)를 꿈꾸게 하는 섬을 찾아 화성시 궁평항으로 길을 나선다.

국화도(菊花島) 탐방코스

선착장 - 해맞이전망대 - 국화도해수욕장 -
갯벌 체험장 - 맥박섬(토끼섬) - 둘레길 -
정자 - 도지섬 - 해안둘레길 - 선착장 - 등대
: 총 6.7km, 3시간 소요

오전 9시 서해도선에 몸을 싣는다. 바람 때문에 파도가 제법 세찼으나 기관장의 잔잔한 설명 덕에 조개를 캐러 간다는 손님 한 분을 입파도에 내려놓고 키를 돌려 10여 분 후 국화도에 닿았다.

‘죽기 전에 가봐야 할 국내여행 1001선’에 뽑힌 국화도는 행정구역으로 경기도 화성시다. 그러나 거리는 충남 당진이 훨씬 가깝다. 궁평항에서 뱃길로 45분 남짓이고 당진 장고항에서는 15분 거리라서 섬 주민 대부분은 당진에 생활권을 두고 있다.

조선말 경기감사와 충청감사는 어업권 확보를 위해 서로 국화도가 자기 관할임을 주장했다. 양쪽 의견이 팽팽히 맞서자 표주박을 띠워서 닿는 곳을 관할구역으로 정하기로 했다. 결과는 경기감사가 이겼다. 떠가던 표주박이 우정읍 매향리에 닿아 이때부터 국화도는 매향리 부속 도서가 됐다고.

선착장은 조용하나 삭풍처럼 읊씨년스럽다. 안내도를 보며 섬에서 일정을 머릿속에 그린 뒤 먼저 붉은 기운을 뿜어내는 동해의 일출과 달리 오렌지 빛





남주만들어 물때에 맞춰 겨울 바닷바람을 맞으면 굴을 따고 있다

을 발산한다는 해맞이 전망대로 발길을 잡는다. 3층 팔각정 전망대에 서니 북쪽으로 멀리 풍도와 육도가 아스라하고, 그 앞에 등대를 지고 앉은 입파도가 떠 있다. 남쪽으로는 멀리 제부도와 화성방조제가 조망된다.

국화도에는 차가 들어가지 못한다. 섬이 작다는 이유도 있지만, 그래서 청정지역이다. 면적은 0.39 km², 천천히 걸어도 한 시간 반이면 섬 전체를 돌아본다. 다만 농사지은 땅이 적고, 고기잡이도 마땅치 않아 주민들은 소규모 양식장 운영과 낚시꾼·관광객들에 기대어 생계를 잇는다.

작은 언덕을 넘어가면 천혜의 해수욕장이 활처럼 길게 펼쳐진다. 경사가 완만하고 조개껍데기로 만들어진 모래와 잔자갈이 적당히 섞여 있어 어린아이를 동반한 가족 소풍에 안성맞춤이다. 갯벌체험장을 지나 가장 멋진 경관을 보여준다는 매박섬, 일명 토끼섬으로 다가간다.

국화도는 썰물 때면 바닷길이 열리는 두 개의 섬, 매박섬과 도지섬을 거느린다. 토끼섬은 밀물 때 길이 끊기고, 도지섬은 썰물이 돼야 길이 열린다. 마침 썰물 때라 바람과 어우러진 바다가 서서히 속살을 드러낸다. 동쪽과 서쪽에서 밀려오는 파도가 서로 맞부딪치며 비로소 바닷길이 열린 것이다. 굴 껌데기가 떠밀려 와 쌓인 새하얀 해안,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쟁그럽게 잘그락대는 소리가 정겹다. 이름이 토끼섬인데, 과연 이곳에 토끼가 살고 있을까?

조개와 고등잡이 체험을 하고, 야간에는 횃불 들고 낙지도 잡는다는 토끼섬을 나와 소나무가 군락을 이룬 산자락을 오르면 국화도가 자랑하는 둘레길과 연결된다. 바닷물을 끌어들여 담수로 만드는 시설을

지나 가장 높은 능선(해발 63m)에 서자 북쪽으로 입파도가 빤히 보여 운치를 더한다. 작은 정자를 만나 잠시 숨을 돌리고, 또 다른 바닷길이 열린다는 도지섬을 향한다.

섬의 이름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화성시 도서편에는 우정읍 구화도(九化島)가 원래 지명이라 했다. 조선 시대에 유배지가 되면서 만화리에 속해있어 만화도로 불리다가 일제강점기에 국화리가 되면서 섬 이름도 바뀌었다. 현지 주민들은 꽃이 늦게 피고 늦게 지는 까닭에 늦을 '만(晚)'자를 써서 만화도로 불렀다고 한다. 또한 서해에 '아름다운 꽃처럼 피어난 섬'이란 뜻과 이곳에서 많이 나오는 조가비가 '국화꽃'을 닮아 예전부터 국화도로 불렀다고 전한다.

굴 껌데기가 쌓여 작은 구릉을 이룬 도지섬은 울창한 소나무 숲을 이루고 있다. 정상을 올랐으나 사방이 절벽일 뿐 길이 없다. 발길을 되돌려 내려가 선착장으로 향한다. 썰물로 드러난 시멘트길이 마을과 직선으로 연결된다. 별이 좋아선지 어부가 그물 손질하는 손길이 무척 재다. 평일이고 비수기라서 조용한 마을은 한층 평화롭다. 예전의 분교장은 마을 교육관으로, 건물은 대부분 펜션으로 변모하여 해마다 2만~3만 명이 찾는 관광지임을 실감한다.

화성 궁평항과 당진 장고항에서 매일 정기여객선이 운항한다.

궁평항은 평일 매표소에서 표를 끊으면 되나, 주말은 예약제로 운영되므로 직접 전화(010-8274-4050)로 예약해야 한다. 간혹 물때에 따라 출항 시간이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전화로 운항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



국화도 둘레길

‘하루100원 경동사랑’은 동인랑의 의무입니다

– 동문이라면 1구좌 이상, 회보를 보고 있다면 3구좌 이상 꼭 가입해 주세요 –

하루100원 경동사랑 가입 신청서

전 경동인은 의무 가입입니다 ♥



3구좌 : 월 9,000원
5구좌 : 월 15,000원
10구좌 : 월 30,000원
100구좌 : 월 300,000원

성명	졸업 회수		회
전화번호	생년 월 일		
가입구좌수	구좌	약정 일	5일, 15일, 25일
은행명			
계좌번호			

위 신청서를 작성하여 휴대폰을 찍어 사무총장 휴대폰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김태빈(40회) 사무총장 010-4111-3362

입금계좌 : 우리은행 1006-380-744100 예금주 : (사)경동고동창회

※ 자동이체를 원하지 않는 분들은 위 계좌로 직접 송금하셔도 됩니다.

총동창회 사무국 T. 02)744-1001 F. 02)741-5868
홈페이지 <https://cafe.daum.net/kyungdongi>

‘하루100원 경동사랑’ 현황

기부금 2025년 1월 15일 현재 1,013명, 1개 동호회 / 5,380구좌 / 연 193,680,000원
 현황 (누계 인원 3,166명, 지부·동호회 / 누계 51,381구좌 / 누적금액 1,849,716,000원)

京東 1,000구좌 京東 100구좌

8회 0구좌	9회 5구좌	10회 5구좌	11회 13구좌	12회 33구좌	13회 5구좌	14회 6구좌
15회 5구좌	16회 7구좌	17회 26구좌	18회 10구좌	19회 1구좌	20회 16구좌	21회 81구좌
22회 55구좌	23회 88구좌	24회 506구좌	25회 273구좌	26회 52구좌	27회 118구좌	28회 90구좌
29회 531구좌	30회 281구좌	31회 832구좌	32회 306구좌	33회 617구좌	34회 139구좌	35회 198구좌
36회 97구좌	37회 129구좌	38회 38구좌	39회 47구좌	40회 348구좌	41회 49구좌	42회 72구좌
43회 66구좌	44회 32구좌	45회 59구좌	46회 126구좌	47회 21구좌	48회 6구좌	49회 17구좌
50회 13구좌	51회 10구좌	52회 3구좌	53회 14구좌	54회 0구좌	55회 1구좌	56회 1구좌
57회 0구좌	58회 0구좌	59회 7구좌	60회 5구좌	61회 0구좌	62회 3구좌	63회 1구좌
64회 1구좌	65회 0구좌	66회 0구좌	67회 1구좌	68회 0구좌	69회 1구좌	70회 0구좌
71회 0구좌	72회 1구좌	73회 3구좌	74회 0구좌	75회 0구좌	76회 1구좌	77회 0구좌

※ 동호회 기부 내역 : 경동총동창기독인회 10구좌 10년

‘하루100원 경동사랑’ 캠페인 참여명단

2025.01.15. 현재 5,380구좌 (1,013명, 1개 동호회)

출업회수	성 명 (구좌수)				
9회	박운건(3구좌)	최세창(3구좌)			
10회	김승겸(5구좌)				
11회	박기천(3구좌)	채영복(10구좌)			
12회	구종서(30구좌)	정병기(3구좌)			
13회	김대식(10구좌)	서정석(5구좌)			
14회	이원규(3구좌)	정성호(3구좌)			
15회	조남작(5구좌)				
16회	김장웅(1구좌)	목은규(1구좌)	조준희(1구좌)	한광세(5구좌)	
17회	김명호(10구좌)	양교석(용현)(5구좌)	양교석(하당)(5구좌)	이건영(3구좌)	장병윤(3구좌)
19회	이홍섭(1구좌)	정기선(1구좌)			
20회	안병준(3구좌)	염일순(10구좌)	최인태(3구좌)		
21회 (11명,78구좌)	김갑주(20구좌)	김용욱(10구좌)	김태훈(3구좌)	박용선(5구좌)	이경훈(3구좌)
	이순우(20구좌)	이은목(3구좌)	지태진(3구좌)	허영빈(3구좌)	황광성(3구좌)
	황병호(5구좌)				
22회	김현창(5구좌)	박승현(10구좌)	염간균(10구좌)	이익우(10구좌)	이훈구(20구좌)
23회 (8명,88구좌)	구관영(30구좌)	김진수(10구좌)	박재준(30구좌)	변경훈(1구좌)	손상락(5구좌)
	오재명(1구좌)	이상훈(10구좌)	이주석(1구좌)		
	강신길(3구좌)	고동준(3구좌)	고영철(3구좌)	고형봉(10구좌)	곽종수(38구좌)
	권종진(10구좌)	김광영(3구좌)	김남진(3구좌)	김상기(10구좌)	김수현(10구좌)
	김영국(5구좌)	김일섭(3구좌)	김종립(10구좌)	김주홍(5구좌)	김진경(3구좌)
	김형구(3구좌)	김호일(5구좌)	나성식(10구좌)	나화열(5구좌)	남상태(30구좌)
	박용철(10구좌)	박찬호(10구좌)	박태환(3구좌)	서중원(10구좌)	신동제(2구좌)
	신재덕(1구좌)	엄규홍(5구좌)	오춘식(100구좌)	이규성(5구좌)	이승용(1구좌)
	이종덕(10구좌)	이종복(10구좌)	이중규(3구좌)	이진욱(11구좌)	이철원(10구좌)
	이항래(5구좌)	임은호(30구좌)	장광종(3구좌)	장용진(5구좌)	장희재(10구좌)
24회 (48명,506구좌)	정해관(5구좌)	주승일(35구좌)	최규형(10구좌)	최성호(5구좌)	허숙(10구좌)
	홍석일(5구좌)	홍석모(10구좌)	홍태희(10구좌)		
	강정호(5구좌)	김상오(3구좌)	김양모(2구좌)	김영택(10구좌)	김자오(5구좌)
	김호석(5구좌)	남상현(5구좌)	박봉용(5구좌)	박우철(10구좌)	신복수(5구좌)
	유현동(3구좌)	윤병칠(3구좌)	윤홍중(3구좌)	이기준(10구좌)	이도현(5구좌)
	이철(10구좌)	이춘식(5구좌)	임종관(100구좌)	장순익(5구좌)	장형덕(25구좌)
	전영문(5구좌)	전우희(20구좌)	전중원(10구좌)	조건현(5구좌)	지경섭(1구좌)
	최중구(3구좌)	한효섭(5구좌)			
	권정호(1구좌)	김성기(5구좌)	김종정(3구좌)	도장록(5구좌)	박 철(5구좌)
	이진규(3구좌)	최찬묵(20구좌)	황용주(10구좌)		
25회 (27명,273구좌)	김건홍(10구좌)	김상학(3구좌)	김영수(10구좌)	김철수(2구좌)	김호중(10구좌)
	박서근(10구좌)	유기남(3구좌)	유희만(30구좌)	윤수혁(10구좌)	이강식(5구좌)
	이두형(10구좌)	이명철(3구좌)	장갑순(3구좌)	장 훈(1구좌)	정제봉(10구좌)
	조동식(1구좌)	조성한(2구좌)	최대일(1구좌)	최병권(3구좌)	홍준화(1구좌)
	김동규(3구좌)	김영욱(3구좌)	김용덕(10구좌)	김정남(5구좌)	백수현(1구좌)
	백영석(5구좌)	양태석(3구좌)	이수연(30구좌)	이원우(1구좌)	이의규(3구좌)
26회 (8명,52구좌)	이종선(10구좌)	정동기(10구좌)	조승규(3구좌)	차철이(3구좌)	
	강순철(10구좌)	고경진(5구좌)	김광근(1구좌)	김광중(100구좌)	김명관(5구좌)
	김상훈(3구좌)	김연재(3구좌)	김영배(5구좌)	김용인(5구좌)	김용훈(1구좌)
	김정만(10구좌)	김항배(1구좌)	김해근(5구좌)	남홍기(9구좌)	문성철(50구좌)
	문화도(30구좌)	박기석(10구좌)	박문기(10구좌)	박선하(10구좌)	박종성(10구좌)
	박찬봉(3구좌)	박창선(10구좌)	박홍수(3구좌)	배재욱(5구좌)	서갑률(3구좌)
	서범석(5구좌)	석동은(3구좌)	신준섭(10구좌)	양두석(3구좌)	원두희(1구좌)
	유봉열(5구좌)	유승호(3구좌)	유영수(3구좌)	이갑순(10구좌)	이동주(10구좌)
	이병주(3구좌)	이영철(10구좌)	이정만(5구좌)	이창훈(5구좌)	이홍표(10구좌)
	장한영(6구좌)	전경수(50구좌)	정운덕(1구좌)	정인형(10구좌)	정현탁(5구좌)
27회 (20명,128구좌)	정희종(3구좌)	조병주(10구좌)	조충구(10구좌)	주진원(10구좌)	차병석(9구좌)
	최동환(1구좌)	최석중(5구좌)	최시봉(5구좌)	최영범(3구좌)	홍종수(10구좌)
	강성문(1구좌)	강재성(4구좌)	기충호(2구좌)	김광중(3구좌)	김대휘(10구좌)
	김동열(3구좌)	김병선(3구좌)	김병은(5구좌)	김병일(10구좌)	김병현(5구좌)
	김봉열(3구좌)	김상구(3구좌)	김상연(3구좌)	김석조(1구좌)	김성민(5구좌)
	김성후(3구좌)	김승배(1구좌)	김종수(3구좌)	김종준(3구좌)	김중환(1구좌)
	김진욱(3구좌)	김하룡(1구좌)	나영호(3구좌)	박광복(3구좌)	박기양(3구좌)
	박명진(1구좌)	박형열(3구좌)	송민희(3구좌)	송호준(3구좌)	신명섭(1구좌)
	신성도(10구좌)	신윤승(30구좌)	안민성(3구좌)	안원준(5구좌)	안치연(1구좌)
	안학수(3구좌)	안희만(1구좌)	양 보(10구좌)	오동혁(1구좌)	옥원호(5구좌)
28회 (14명,90구좌)	원종현(1구좌)	위규진(3구좌)	유경근(3구좌)	윤일선(5구좌)	이득희(3구좌)

졸업회수	성 명 (구좌수)			
30회 (73명,281구좌)	이문원(1구좌)	이상용(3구좌)	이수경(1구좌)	이승재(1구좌)
	이우방(10구좌)	이재춘(6구좌)	이준식(1구좌)	이태우(3구좌)
	이형식(3구좌)	이호갑(1구좌)	이호증(1구좌)	이홍은(10구좌)
	임명수(2구좌)	임민수(1구좌)	장구남(2구좌)	정상윤(10구좌)
	조광수(5구좌)	조성권(3구좌)	주원기(3구좌)	지길평(5구좌)
	한동호(10구좌)	홍범기(1구좌)	황태형(1구좌)	진윤식(1구좌)
	강감구(3구좌)	강동식(3구좌)	강상현(3구좌)	강종목(3구좌)
	강철규(3구좌)	고승환(100구좌)	고응남(3구좌)	곽진수(3구좌)
	권석훈(1구좌)	권순용(1구좌)	권오철(15구좌)	김 걸(10구좌)
	김광수(10구좌)	김기권(10구좌)	김기용(10구좌)	김경립(1구좌)
	김기홍(10구좌)	김낙희(2구좌)	김대식(3구좌)	김동일(3구좌)
	김병호(3구좌)	김상익(3구좌)	김성만(3구좌)	김성훈(1구좌)
	김승식(3구좌)	김승환(1구좌)	김신철(3구좌)	김안준(3구좌)
	김왕순(3구좌)	김윤수(3구좌)	김익수(5구좌)	김재상(10구좌)
	김종국(3구좌)	김종만(5구좌)	김종선(3구좌)	김종철(10구좌)
	김 철(1구좌)	김철환(3구좌)	김학주(5구좌)	김형기(5구좌)
	김 환(1구좌)	노연홍(13구좌)	류성걸(3구좌)	문영운(4구좌)
	배재봉(3구좌)	박민희(3구좌)	박병일(5구좌)	박종일(5구좌)
	배철균(3구좌)	백광식(6구좌)	심평강(3구좌)	서명범(3구좌)
31회 (170명,837구좌)	서주은(3구좌)	석정봉(5구좌)	송덕환(3구좌)	송맹수(3구좌)
	송우호(3구좌)	송종복(1구좌)	신동민(1구좌)	신동호(5구좌)
	신원식(3구좌)	신윤수(3구좌)	신임하(3구좌)	심재철(5구좌)
	안경훈(3구좌)	안광천(2구좌)	안동규(10구좌)	양현창(3구좌)
	오준근(5구좌)	오 철(3구좌)	우나섭(3구좌)	유승규(3구좌)
	유영후(3구좌)	유익형(3구좌)	유재우(10구좌)	윤경규(3구좌)
	윤용승(6구좌)	윤용운(5구좌)	윤창수(3구좌)	윤형근(5구좌)
	이근윤(10구좌)	이기석(3구좌)	이도형(3구좌)	이문규(20구좌)
	이성민(5구좌)	이세구(3구좌)	이세연(10구좌)	이수용(1구좌)
	이영석(31구좌)	이원복(3구좌)	이장훈(3구좌)	이재기(3구좌)
	이종섭(3구좌)	이종철(3구좌)	이창범(3구좌)	이창엽(3구좌)
	이태규(3구좌)	이태직(5구좌)	이하구(3구좌)	이호성(3구좌)
	임세영(1구좌)	임수택(3구좌)	임용진(3구좌)	임윤호(3구좌)
	전병주(5구좌)	장민환(4구좌)	장병석(2구좌)	장인수(3구좌)
	지영훈(3구좌)	진병욱(5구좌)	진형섭(3구좌)	정관식(2구좌)
	정기웅(5구좌)	정달진(3구좌)	정명국(3구좌)	정용식(6구좌)
	조병직(5구좌)	조성경(5구좌)	조한준(3구좌)	조현봉(5구좌)
	주인상(3구좌)	차동건(10구좌)	차재욱(3구좌)	최동욱(10구좌)
	최정탁(2구좌)	최종섭(5구좌)	최준오(3구좌)	최진성(3구좌)
	최형일(3구좌)	최호용(10구좌)	탁윤정(3구좌)	한상수(3구좌)
32회 (61명,309구좌)	허 권(5구좌)	홍승표(5구좌)	황덕현(3구좌)	황철성(3구좌)
	강성순(5구좌)	강춘식(5구좌)	김경남(5구좌)	김길수(20구좌)
	김병성(10구좌)	김완기(3구좌)	김재율(10구좌)	김정곤(1구좌)
	김종덕(3구좌)	김종욱(5구좌)	곽 걸(3구좌)	김중영(1구좌)
	김홍덕(5구좌)	남용현(3구좌)	동기원(10구좌)	류규호(2구좌)
	성철경(10구좌)	송덕한(3구좌)	신형승(3구좌)	안완섭(3구좌)
	안재환(10구좌)	오명석(3구좌)	오석기(10구좌)	이장희(5구좌)
	이강수(3구좌)	이규태(5구좌)	이동훈(3구좌)	이만지(3구좌)
	이석재(3구좌)	이성동(10구좌)	이성철(3구좌)	이의복(3구좌)
	이치석(3구좌)	이호규(3구좌)	인성배(3구좌)	임영준(3구좌)
	정일섭(5구좌)	장용진(3구좌)	전우용(3구좌)	정구영(3구좌)
	조창근(10구좌)	정후길(3구좌)	조경환(10구좌)	조성현(5구좌)
	주인종(1구좌)	채수용(3구좌)	최치영(10구좌)	홍기문(10구좌)
	황희철(5구좌)	강인순(20구좌)	강현석(3구좌)	고상록(1구좌)
33회 (46명,457구좌)	강우일(10구좌)	권우주(3구좌)	김만식(3구좌)	김범초(25구좌)
	권영철(1구좌)	김홍빈(1구좌)	김홍욱(10구좌)	김상순(100구좌)
	김승구(3구좌)	박문규(1구좌)	백종태(10구좌)	남의식(3구좌)
	박동영(2구좌)	송재욱(1구좌)	안기환(20구좌)	박영우(20구좌)
	손진우(3구좌)	이동호(3구좌)	이상민(3구좌)	오동희(4구좌)
	이경일(5구좌)	이재욱(1구좌)	임 철(1구좌)	이용욱(2구좌)
	이은권(5구좌)	정규수(10구좌)	정재원(3구좌)	임순범(20구좌)
	전진욱(20구좌)	한기인(1구좌)	한 민(3구좌)	정일선(5구좌)
	하은실(20구좌)	한기인(1구좌)	홍현종(1구좌)	최명좌(1구좌)
	홍순석(20구좌)	강하식(1구좌)	고광철(3구좌)	허기영(3구좌)
34회 (37명,142구좌)	강광진(3구좌)	김상언(10구좌)	김주섭(1구좌)	김강민(5구좌)
	김기백(1구좌)	박만규(1구좌)	박협규(3구좌)	김준성(3구좌)
	노정암(5구좌)			김창수(3구좌)
				박용화(1구좌)
				배준용(3구좌)

졸업회수	성 명 (구좌수)			
34회 (37명,142구좌)	손세광(3구좌)	손재현(2구좌)	송하용(3구좌)	오광현(1구좌)
	오필소(5구좌)	용석식(3구좌)	윤석규(2구좌)	이경훈(3구좌)
	이기안(10구좌)	이양우(5구좌)	이유식(1구좌)	이주영(10구좌)
	이현기(2구좌)	정경현(3구좌)	정성현(3구좌)	조규호(3구좌)
	최우석(3구좌)	홍승업(10구좌)		최순상(6구좌)
35회 (60명,199구좌)	강종환(4구좌)	공석진(1구좌)	김경기(1구좌)	김기선(3구좌)
	김병무(10구좌)	김복수(3구좌)	김상천(3구좌)	김석영(1구좌)
	김세득(1구좌)	김세열(3구좌)	김영인(5구좌)	김용진(3구좌)
	김의진(5구좌)	김인태(3구좌)	김지원(1구좌)	노찬기(3구좌)
	문상관(10구좌)	박노현(3구좌)	박은원(3구좌)	박종신(3구좌)
	박태웅(3구좌)	박한조(10구좌)	배영택(3구좌)	석정길(3구좌)
	실태섭(1구좌)	안찬경(3구좌)	안태경(3구좌)	은종하(3구좌)
	이상민(10구좌)	이세일(3구좌)	이수우(3구좌)	이유섭(3구좌)
	이재용(3구좌)	이종수(2구좌)	이종욱(3구좌)	이주영(3구좌)
	임종길(3구좌)	장락희(5구좌)	전부순(3구좌)	전승현(3구좌)
	정중근(3구좌)	정찬모(1구좌)	조현기(3구좌)	차승철(3구좌)
	최상민(3구좌)	최수범(3구좌)	최정출(1구좌)	하성도(1구좌)
	강석채(3구좌)	강성환(3구좌)	강일근(3구좌)	강호남(3구좌)
	권영철(5구좌)	김종대(3구좌)	김준기(1구좌)	남상태(3구좌)
	박정훈(3구좌)	박종식(3구좌)	손경락(3구좌)	손현우(3구좌)
36회 (38명,102구좌)	이길우(3구좌)	양영근(3구좌)	양영석(1구좌)	유정근(5구좌)
	이종승(5구좌)	이상봉(1구좌)	이완용(2구좌)	이재승(3구좌)
	이철원(3구좌)	정세철(1구좌)	정원균(3구좌)	조희건(2구좌)
	최봉식(3구좌)	최종덕(1구좌)	홍순옥(3구좌)	홍재화(3구좌)
	홍현호(3구좌)	황근상(3구좌)		황철해(3구좌)
	김길동(10구좌)	김영국(5구좌)	김영수(3구좌)	김한주(1구좌)
	박상남(10구좌)	박성수(1구좌)	박응식(5구좌)	변찬희(10구좌)
	심재홍(3구좌)	안형근(10구좌)	윤창보(3구좌)	임성호(10구좌)
	이태호(3구좌)	이호경(1구좌)	임봉균(3구좌)	이승엽(3구좌)
	장명희(3구좌)	장재호(1구좌)	전기원(10구좌)	정철수(3구좌)
	최관현(1구좌)	태주호(5구좌)	함풍도(1구좌)	주상규(1구좌)
	김성우(4구좌)	김재우(3구좌)	김창신(3구좌)	김효섭(3구좌)
	백환기(3구좌)	이택기(3구좌)	이환희(3구좌)	임중혁(3구좌)
	정동준(3구좌)	정상수(3구좌)	최진선(3구좌)	임호순(3구좌)
37회 (30명,129구좌)	권기관(3구좌)	김대휴(3구좌)	김방영(2구좌)	김범구(1구좌)
	김석종(3구좌)	김창희(3구좌)	김홍선(3구좌)	박영재(3구좌)
	윤규태(3구좌)	이경초(3구좌)	이용준(6구좌)	이진배(3구좌)
	전풍준(1구좌)	한근희(3구좌)		임연태(3구좌)
	강은구(2구좌)	강정수(3구좌)	강태진(3구좌)	강휘종(3구좌)
38회 (13명,38구좌)	고기철(1구좌)	고영진(2구좌)	곽명석(3구좌)	국우석(1구좌)
	김건영(5구좌)	김낙중(3구좌)	김대환(2구좌)	김덕교(3구좌)
	김선정(1구좌)	김성환(5구좌)	김순기(3구좌)	김영민(2구좌)
	김영주(3구좌)	김영채(1구좌)	김영훈(5구좌)	김우일(5구좌)
	김종찬(1구좌)	김진국(3구좌)	김청수(1구좌)	김치원(1구좌)
	김형조(1구좌)	김호종(5구좌)	김후곤(10구좌)	노승구(5구좌)
	류원석(1구좌)	문기설(5구좌)	문재범(3구좌)	민경세(3구좌)
	박보섭(1구좌)	박수양(1구좌)	박용철(3구좌)	박원복(1구좌)
	방규환(10구좌)	백광윤(2구좌)	백훈(3구좌)	박홍기(3구좌)
	성원(5구좌)	소산호(2구좌)	신동규(3구좌)	서정문(1구좌)
	오경영(3구좌)	오석진(5구좌)	오원진(3구좌)	양항석(3구좌)
	유진선(2구좌)	윤재석(3구좌)	윤창선(1구좌)	이국일(3구좌)
	이동우(3구좌)	이병혁(3구좌)	이봉종(3구좌)	이상우(2구좌)
	이상희(3구좌)	이설(3구좌)	이성범(3구좌)	이웅기(3구좌)
	이재욱(3구좌)	이정현(3구좌)	이종철(3구좌)	이준용(3구좌)
40회 (117명,348구좌)	이혁재(3구좌)	이화경(1구좌)	이희종(3구좌)	임영선(3구좌)
	장옥진(10구좌)	장진락(3구좌)	전승재(3구좌)	전용철(2구좌)
	정건주(3구좌)	정상우(5구좌)	정성교(1구좌)	정영호(5구좌)
	정홍균(3구좌)	조경배(5구좌)	조영구(3구좌)	조진양(5구좌)
	조한진(3구좌)	주상현(1구좌)	지윤식(3구좌)	차상용(3구좌)
	최길수(5구좌)	최선근(3구좌)	최순현(3구좌)	최영철(2구좌)
	최현정(3구좌)	하승재(1구좌)	하준(3구좌)	한대연(2구좌)
	황민제(3구좌)	황병두(3구좌)		한재석(1구좌)
	고선빈(4구좌)	고영주(6구좌)	김형석(1구좌)	김묘성(1구좌)
	김태호(3구좌)	김한성(1구좌)	박종필(1구좌)	박성환(10구좌)
	양승욱(1구좌)	우진호(1구좌)	이동환(1구좌)	이성종(3구좌)
	장재영(1구좌)	정원근(3구좌)	정진대(3구좌)	이종오(3구좌)
				함윤기(1구좌)
41회 (20명,49구좌)				

클업회수	성 명 (구좌수)			
42회 (15명,72구좌)	강우영(3구좌) 박대준(10구좌) 유영현(10구좌) 권혁준(3구좌) 김재성(1구좌) 오정우(10구좌) 이진원(3구좌) 강현석(3구좌) 이현욱(3구좌) 강의석(10구좌) 서 철(10구좌) 전호영(3구좌) 강문영(1구좌) 김민성(5구좌) 김태수(3구좌) 양홍식(1구좌) 장한순(5구좌) 차성근(10구좌)	김서곤(10구좌) 서정석(1구좌) 윤 오(3구좌) 김동희(1구좌) 김주일(2구좌) 유정석(1구좌) 임병관(5구좌) 김정환(3구좌) 이홍만(3구좌) 권순호(1구좌) 이선호(1구좌) 최두원(1구좌) 강형석(5구좌) 김세일(5구좌) 박근항(1구좌) 염규옥(3구좌) 정재윤(1구좌) 추상진(3구좌)	김재영(3구좌) 안칠성(4구좌) 이미진(10구좌) 김범준(3구좌) 신지용(10구좌) 이경원(1구좌) 전현기(3구좌) 김창훈(5구좌) 임영욱(3구좌) 김진영(1구좌) 최명록(2구좌) 강혜철(3구좌) 김육태(5구좌) 박명철(5구좌) 정재윤(10구좌) 한형묵(3구좌)	류부현(5구좌) 양용석(1구좌) 이진동(3구좌) 김성주(1구좌) 신춘식(3구좌) 이석우(3구좌) 하상진(5구좌) 안상중(5구좌) 임창완(1구좌) 김형준(5구좌) 한우석(3구좌) 고동희(3구좌) 김윤수(3구좌) 박한성(3구좌) 정창오(10구좌) 허영택(4구좌) 김세진(1구좌) 이복희(1구좌) 임한호(3구좌) 윤정은(3구좌) 윤준항(1구좌) 조인철(3구좌)
43회 (20명,69구좌)				
44회 (10명,32구좌)				
45회 (15명,59구좌)				
46회 (29명,122구좌)				
47회 (7명,21구좌)	김동욱(5구좌) 이현석(5구좌)	김시원(3구좌) 정재윤(1구좌)	김형중(3구좌)	김세진(1구좌) 양승준(3구좌)
48회	김영상(1구좌)	박성재(1구좌)	박재형(1구좌)	이종호(1구좌)
49회	김민상(10구좌)	서장웅(3구좌)	임한호(3구좌)	최수현(1구좌)
50회	장준홍(10구좌)	김종진(3구좌)		
51회	나성재(5구좌)	백승훈(1구좌)	윤정은(3구좌)	이동규(1구좌)
52회	손효성(3구좌)			
53회 (8명,14구좌)	김상구(3구좌) 장대훈(3구좌)	송영호(1구좌) 조원중(1구좌)	윤준항(1구좌) 조인철(3구좌)	윤찬현(1구좌) 이명엽(1구좌)
55회	김래민(1구좌)			
56회	박용호(1구좌)			
59회	신희동(1구좌)			
60회	이준영(5구좌)			
62회	장지우(3구좌)			
63회	이종찬(1구좌)			
64회	김현규(1구좌)			
67회	이원복(1구좌)			
69회	김주호(1구좌)			
72회	박준영(1구좌)			
73회	유재현(3구좌)			
76회	홍인석(1구좌)			
동호회	경동총동창기독인회(10구좌)			

※ 상기 내용 중에 오류 혹은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총동창회 사무국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하루100원 경동사랑' 가입 방법은

1. 스마트폰 화면에서 'Play 스토어'를 터치한 후
2. '경동고총동창회'를 입력하고
3. 경동중고 총동창회 앱을 다운받아
4. '경동총동창회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5. 홈페이지 화면상의 '함께해요 기부천사'를 클릭하여
6. 'CMS 등록하기'에 들어가서
7. CMS 약정서 작성 후 '등록'하면 가입 완료

총동창회 사무국 T. 02) 744-1001



동창회비·발전기금·장학기금 기부자

고액기부자 명단(누계)

14회 정 호	5억 1,000만원	7회 황경노	1억 4,500만원	7회 박용곤	1억 500만원
24회 오춘식	4억 1,580만원	12회 정병기	1억 3,050만원	23회 안준식	1억원
15회 이동준	2억 8,500만원	15회 한상범	1억 3,000만원	23회 박재준	6,080만원
15회 맹 섭	2억 3,000만원	18회 임종웅	1억 2,400만원	5회 최정욱	5,500만원
29회 김광중	1억 9,600만원	18회 위완조	1억 1,000만원	13회 김언기	5,000만원
31회 고승환	1억 9,600만원	32회 김완식	1억 1,100만원	17회 양교석(용현)	5,000만원
25회 임종관	1억 6,600만원	34회 권오섭	1억 1,100만원	25회 조용필	5,000만원
23회 김광열	1억 4,747만원	16회 배치권	1억 610만원		

회비 기부자 2024년 6월 21일 ~ 2025년 1월 10일

2024년도 회비	2024년도 회장단회비	이사회비	발전기금찬조금	발전기금찬조금
23회 동기회 75만원	31회 김기권 100만원	11회 정인균 10만원 〈총 1명〉	8회 정경수 3만원	37회 골프회 50만원
24회 동기회 75만원	31회 여익현 100만원		11회 박기천 68만원	39회 이용준 50만원
25회 동기회 75만원	31회 오준근 100만원		12회 김부일 10만원	40회 골프회 100만원
26회 동기회 75만원	31회 윤용승 100만원		17회 양교석(용현) 5,000만원	43회 골프회 100만원
27회 동기회 150만원	31회 이호성 100만원	평생회비(30만원)	24회 고영봉 100만원	40회 동기회 2,000만원
28회 동기회 150만원	31회 차몽건 100만원	13회 김영철 30만원	24회 오춘식 400만원	낙산회 400만원
29회 동기회 150만원	31회 박병일 100만원	18회 이병택 30만원	27회 유희만 100만원	경동회 200만원
30회 동기회 150만원	33회 김상순 100만원	25회 이청표 30만원	28회 장우천 50만원	청요회 500만원
31회 동기회 150만원	34회 이기안 100만원	34회 오성환 30만원	29회 김광중 1,200만원	동건회 200만원
32회 동기회 150만원	35회 석정길 100만원	36회 신영환 30만원 〈총 5명〉	29회 문희도 200만원	총동창 산악회 200만원
33회 동기회 150만원	36회 이길우 100만원		29회 김해근 100만원	미국뉴욕 동창회 682,186원 〈총 28명, 14개회〉
34회 동기회 150만원	37회 김길동 100만원		29회 김용인 100만원	
35회 동기회 150만원	37회 박상남 100만원		30회 김대휘 100만원	
36회 동기회 150만원	38회 김재우 100만원		30회 탁용준 100만원	
37회 동기회 150만원	38회 임중혁 100만원		30회 정현수 20만원	15회 박상도 200만원
38회 동기회 150만원	40회 전승재 100만원	야구후원금	31회 권오철 300만원	16회 임종우 100만원
39회 동기회 150만원	41회 고영주 100만원 〈총 17명〉	30회 김봉주 3만원	31회 고승환 4,500만원	18회 위원조 1,000만원
40회 동기회 150만원		40회 전승재 200만원	31회 서정국 300만원	24회 김진기 12만원
41회 동기회 150만원		42회 김민호 5만원 〈총 3명〉	31회 김주환 200만원	28회 김형기 100만원
42회 동기회 150만원			31회 이호성 100만원	29회 윤영식 360만원
43회 동기회 150만원			31회 차몽건 100만원	31회 임태희 500만원
44회 동기회 150만원			36회 고병관 100만원	33회 김상순 500만원
45회 동기회 150만원			36회 이철원 100만원	35회 이창민 10만원
46회 동기회 150만원 〈총 24개회〉			39회 전풍준 100만원	40회 김범석 500만원
			41회 백운승 35만원	40회 이종철 500만원
			42회 박종호 100만원	40회 전승재 500만원
			43회 하상진 100만원	41회 백운승 36만원
			15회 동기회 100만원	43회 오정우 500만원
			18회 동기회 100만원	46회 차성근 500만원
			29회 이구회 100만원	낙산회 2,500만원
			34회 골프회 100만원 〈총 15명, 1개회〉	

연회비(3만원) 납부자

11회 이범규 변세균	23회 강문기 권춘상 박종민 전정현	32회 정원일
13회 박재신 이호만 이호관 유용준 전창기	24회 박호서 최규형	33회 김형상 김승구
14회 홍원전	25회 이근학	35회 배성호 이창민
15회 박상도 유기현 유일현	26회 송재현 안재철 안창현	36회 박 육
16회 김기웅 김현풍 오세현	27회 강현식 이관웅 장재수 장돈용 구본상	37회 김 걸
17회 유기철	28회 조승규	42회 김민호 유영철
19회 김동일	29회 문희도 심재성 양주석	57회 김주현 〈총 50명〉
22회 주진홍 조석주	31회 신원식 오광일 유덕기 이재창 김걸	

회장단 회비 기부자 2001년 1월 1일 ~ 2025년 1월 10일

회장단 회비 (누계)

1,200만원	신영재(18)	이건영(18)	홍준식(22)	홍광표(24)				
1,100만원	김 육(18)	장동호(24)						
1,000만원	신상균(22)	구관영(23)	최서형(29)	박광복(30)	이영석(31)			
900만원	박기석(29)	이경호(29)	이동근(30)	임태희(31)				
800만원	최공웅(14)	윤진섭(22)	박찬욱(24)	박우철(25)				
700만원	윤호철(29)	김덕배(30)	홍기문(32)					
600만원	박찬호(24)	이중규(24)	주승일(24)	장형덕(25)	차철이(28)	김용률(29)	이기재(34)	
500만원	이동준(15)	김수중(16)	배치권(16)	이종현(20)	김갑주(21)	임은호(24)	강호중(25)	김은식(27)
	김완식(32)							김해근(29)
450만원	김서운(16)							이동주(29)
400만원	정성호(14)	전용태(15)	고준영(16)	김현풍(16)	한광세(16)	이문재(17)	백준기(19)	이순우(21)
	이동희(24)	김호균(26)	김호중(27)	김조근(28)	정인진(28)	장광근(29)	이주영(24)	박상남(37)
300만원	이종성(12)	정 호(14)	김 건(16)	김기웅(16)	박준관(16)	방연호(16)	신항철(16)	윤명중(16)
	한종무(17)	박태현(18)	위완조(18)	문우행(19)	이혜광(19)	박재호(20)	장현식(23)	이광수(16)
	김용덕(28)	정동기(28)	문희도(29)	신준섭(29)	이정만(29)	정현탁(29)	김기용(31)	이재양(24)
	전우희(25)						김형태(31)	홍태희(24)
250만원	최오중(5)	김현식(8)	최명남(9)	이근수(10)	태석배(11)	박영식(12)	변 택(13)	권혁조(14)
	신광철(14)	이지송(14)	이현묵(14)	장화관(14)	정우송(14)	조현종(14)	최복현(14)	박원웅(14)
	송기태(15)	오성웅(15)	이병일(15)	이인규(15)	이정구(15)	임우빈(15)	지경홍(15)	민관식(15)
	김건동(16)	김규원(16)	김인영(16)	김종욱(16)	김종화(16)	박영철(16)	변광연(16)	구본명(16)
	우윤식(16)	이상옥(16)	이웅묵(16)	이의호(16)	이전학(16)	이찬우(16)	장문소(16)	양명호(16)
	피재년(16)	한광조(16)	한남수(16)	황치성(16)	이명섭(17)	오영근(18)	임종웅(18)	오태순(16)
	강남석(22)	송석천(22)	이해정(22)	장창빈(22)	김기창(23)	박재준(23)	곽종수(24)	김현우(21)
	박제화(24)	유돈희(24)	윤원식(24)	이규성(24)	이영성(24)	이 훈(24)	정규섭(24)	김형탁(25)
	이찬승(25)	이 철(25)	장순익(25)	홍건화(25)	김경수(26)	박영수(26)	산동일(26)	김진식(27)
	유효희(27)	유희만(27)	이두형(27)	현진우(27)	강병직(28)	고수만(28)	이성윤(28)	김광중(29)
	김연재(29)	신윤승(30)	이한열(30)	권오철(31)	김기권(31)	김주환(31)	여익현(31)	이호성(31)
	차몽건(31)	이호규(32)	전형도(32)	김상순(33)	공성국(33)	안기환(33)	최동욱(33)	이기안(34)
	박한조(35)	강성환(36)	박동완(36)	김재우(38)	이윤용(39)	전승재(40)	고영주(41)	김병무(35)
150만원	육대희(29)							
100만원	김만용(8)	김명구(12)	강기남(14)	김 구(14)	김란식(14)	김용일(14)	박광식(14)	박인수(14)
	윤덕노(14)	이문상(14)	정홍근(14)	한상일(14)	강창규(15)	김국진(15)	김명하(15)	성준경(14)
	변강원(15)	유기형(15)	이태영(15)	장세웅(15)	조구희(15)	홍영극(15)	김인진(15)	박영서(15)
	김선래(16)	김영철(16)	김총두(16)	방건길(16)	서무창(16)	안광구(16)	강준구(16)	박건호(15)
	윤임구(16)	이관규(16)	이남주(16)	이동운(16)	아석희(16)	이성관(16)	이재욱(16)	구경웅(16)
	임성재(16)	임종두(16)	정 담(16)	정민영(16)	정태영(16)	조광양(16)	최수웅(16)	이종경(16)
	이광희(17)	이종남(17)	김목민(18)	김범수(18)	김학천(18)	맹장호(18)	박승남(18)	이현복(16)
	이상호(18)	이재정(18)	이종구(18)	정진방(18)	최조영(18)	윤승열(19)	전계희(19)	김동일(20)
	박보명(21)	백종기(21)	오해영(21)	이양수(21)	황태연(21)	이영성(22)	최대일(22)	김왕식(23)
	오재명(23)	임선민(23)	조영희(23)	한종열(23)	강희병(24)	고동준(24)	고영철(24)	권종진(24)
	김상기(24)	김성자(24)	김승열(24)	김우광(24)	김준기(24)	김태웅(24)	김형권(24)	김문겸(24)
	서석환(24)	서중원(24)	신재덕(24)	안명규(24)	엄태호(24)	오시정(24)	우태형(24)	김봉철(24)
	이욱환(24)	이은구(24)	임연빈(24)	장광종(24)	장용진(24)	정일만(24)	정종국(24)	이기원(18)
	하태연(24)	홍석일(24)	홍성모(24)	김춘식(25)	문형권(25)	백경열(25)	신복수(25)	이우종(20)
	진남국(25)	김성기(25)	송근영(26)	이진규(26)	임대종(26)	최명배(26)	최찬묵(26)	박서근(27)
	김영욱(28)	김용덕(28)	신성수(28)	한 훈(28)	강덕환(29)	강순철(29)	강윤식(29)	온상훈(25)
	금상문(29)	김남중(29)	김명관(29)	김상훈(29)	김석용(29)	김 순(29)	김영국(29)	김영배(29)
	남홍기(29)	박문기(29)	박병용(29)	박사옥(29)	박선하(29)	박종성(29)	박창선(29)	김정만(29)
	신장순(29)	신정수(29)	심영기(29)	심윤보(29)	양두석(29)	양주석(29)	오광제(29)	김향배(29)
	유진홍(29)	윤영식(29)	윤호선(29)	이동문(29)	이동원(29)	이동주(29)	이범호(29)	온상훈(25)
	이홍표(29)	임영진(29)	임용우(29)	장명호(29)	전경수(29)	전국진(29)	정운덕(29)	이철희(29)
	조영재(29)	차성진(29)	장명호(29)	전경수(29)	전국진(29)	정운덕(29)	조 선(29)	조세현(29)
	차성진(29)	박병일(31)	송재만(31)	정우철(31)	조정근(31)	주인상(31)	김동현(32)	조신행(29)
	유국형(32)	홍선기(32)	황인택(32)	이석구(33)	이연하(33)	박협규(34)	이규식(34)	문성철(32)
	이윤수(35)	정중근(35)	강석채(36)	박병주(36)	이길우(36)	이철원(36)	김길동(37)	서용식(32)
	전풍준(39)	최 운(39)	노승구(40)	하상진(43)	서 철(45)			우원식(32)
50만원	김동환(16)	박상은(23)	장락중(24)	김창욱(29)	목철균(29)	민영우(29)	박홍균(29)	최명진(29)
30만원	양장근(29)	이남영(29)	이석태(29)	최석중(29)				홍성덕(29)
20만원	최정환(29)							
10만원	김용겸(29)	심재성(29)	이재희(29)					
총인원	492명							

발전기금 기부자 2001년 1월 1일 ~ 2025년 1월 10일

개인동문

1억 9,100만원	고승환(31)	170만원	임영식(22)			
1억 8,500만원	이동준(15)	150만원	조영희(6)	김부일(12)	이순우(21)	박찬욱(28)
1억 7,500만원	김광중(29)		임용진(31)	차동건(31)	총승업(34)	고은남(31)
1억 6,000만원	맹 섭(15)	140만원	임은호(24)			
1억 2,400만원	임종웅(18)	130만원	홍순규(5)	박광복(30)		
1억 4,400만원	오춘식(24)	127만원	송병남(12)			
1억 300만원	정 호(14)	113.5만원	권영길(14)			
1억 110만원	배치관(16)	110만원	이성용(11)	김형수(26)		
8,600만원	김원식(32)	107만원	조천기(24)	이종수(35)		
5,000만원	양교석(용현)(17)	103만원	김기준(16)			
3,200만원	조용필(25)	100만원	신화용(3)	이용희(5)	서정길(6)	이승원(6)
2,300만원	한광세(16)		이규영(7)	김영섭(8)	맹선재(8)	유연규(11)
2,400만원	권오철(31)		남기환(14)	임상원(14)	조남직(15)	김원수(17)
2,200만원	이경희(27)		문수광(17)	배영복(17)	(용현)양교석(17)	정관희(17)
2,101만원	남상태(24)		백승구(18)	신종수(18)	윤화일(18)	김덕훈(18)
2,100만원	이진규(26)			류옥섭(20)	이광조(18)	정진방(18)
2,000만원	황경노(7)	박우철(25)	임종관(25)	유재홍(20)	김용욱(21)	송석천(22)
1,600만원	윤두섭(14)	전병주(31)	권오섭(34)	전상기(22)	김기창(23)	박희현(23)
1,500만원	정인균(11)	임태희(31)		조영희(23)	신경현(23)	이승국(23)
1,300만원	최정욱(5)	이근수(10)	한태희(15)	강희병(24)	김준기(24)	나성식(24)
1,200만원	서정국(31)		이문규(31)	오시정(24)	이구성(24)	안명규(24)
1,150만원	변 택(13)			임연빈(24)	이문상(24)	이상만(24)
1,123만원	(하당)양교석(17)	김명관(29)		장광종(24)	장용진(24)	이재양(24)
1,120만원	한배웅(15)			최석태(24)	정규섭(24)	최병한(24)
1,100만원	문화도(29)			김춘식(25)	박현규(25)	장형덕(25)
1,000만원	이병학(20)			안창현(26)	유희만(27)	신동일(26)
800만원	김병철(11)	김양현(12)	이지승(14)	안병욱(15)	차상훈(27)	차철이(28)
710만원	박태현(18)	신영재(18)	위완조(18)	김현우(21)	김영배(29)	김용인(29)
630만원	장동호(24)	문형권(25)	정상진(26)	박영남(24)	김재승(29)	조세현(29)
610만원	정동기(28)	김대휘(30)	김기용(31)	노상범(28)	김병일(30)	김한겸(30)
582만원	박기천(11)			이경호(29)	정원국(30)	탁용준(30)
554만원	김우택(7)			장상현(31)	고현진(31)	김길(31)
505만원	조정근(31)			이종철(31)	김낙희(31)	김병효(31)
500만원	김병길(7)	박용근(7)	손승요(15)	김영남(20)	김병호(31)	오준근(31)
462만원	백운승(41)			박호식(20)	이호성(31)	최동욱(31)
460만원	강기학(35)			강춘식(32)	이충직(31)	정용식(31)
320만원	박인수(14)			정규수(33)	김성기(33)	오동진(33)
310만원	최중기(24)			고병관(36)	안재환(32)	오영국(33)
300만원	윤상호(7)	최공웅(14)	김재진(20)	박준호(34)	김성기(33)	김윤상(35)
250만원	이종규(24)	권재영(26)	정인진(28)	이기안(34)	맹준호(34)	이양우(34)
230만원	김상순(33)			고병봉(24)	이기안(34)	김윤상(35)
225만원	윤병칠(25)	신성도(30)		장우천(28)	권현준(36)	남상태(36)
210만원	김명호(17)	박문기(29)		이용준(39)	이영상(37)	이철원(36)
200만원	신재덕(24)			정현수(30)	이용준(39)	전풍준(39)
195만원	최영남(9)	신윤승(30)		50만원	박종호(42)	고영주(41)
190만원	허형배(5)	정경수(8)	류주형(9)	이종철(31)	최수한(49)	
185만원	채명복(11)	장용원(12)	이동화(14)	김석기(13)		
180만원	나도상(22)	이명우(22)	김수웅(15)	이경희(14)		
175만원	유돈희(24)	장휘종(22)	임종두(16)	최무광(18)		
170만원	도장록(26)	이중규(24)	윤형로(23)	이해관(19)		
165만원	정삼진(28)	송근영(26)	박제화(24)	김석기(13)		
160만원	김주환(31)	김명수(27)	주승일(24)	이태연(21)		
155만원	하상진(43)	김수연(28)	홍석일(24)	문순신(24)		
150만원	김범초(33)	박영우(33)	이수연(28)	장우천(28)		
145만원	김주환(31)	용석식(34)	유재우(31)	이계성(27)		
140만원	하상진(43)		이주영(34)	이정호(31)		
135만원	김기준(16)			30만원	정경호(34)	
130만원	김기준(16)			35만원	김기준(16)	
125만원	김기준(16)			40만원	김기준(16)	
120만원	김기준(16)			45만원	김기준(16)	
115만원	김기준(16)			50만원	김기준(16)	
110만원	김기준(16)			55만원	김기준(16)	
105만원	김기준(16)			60만원	김기준(16)	
100만원	김기준(16)			65만원	김기준(16)	
95만원	김기준(16)			70만원	김기준(16)	
90만원	김기준(16)			75만원	김기준(16)	
85만원	김기준(16)			80만원	김기준(16)	
80만원	김기준(16)			85만원	김기준(16)	
75만원	김기준(16)			90만원	김기준(16)	
70만원	김기준(16)			95만원	김기준(16)	
65만원	김기준(16)			100만원	김기준(16)	
60만원	김기준(16)			105만원	김기준(16)	
55만원	김기준(16)			110만원	김기준(16)	
50만원	김기준(16)			115만원	김기준(16)	
45만원	김기준(16)			120만원	김기준(16)	
40만원	김기준(16)			125만원	김기준(16)	
35만원	김기준(16)			130만원	김기준(16)	
30만원	김기준(16)			135만원	김기준(16)	
25만원	김기준(16)			140만원	김기준(16)	
20만원	김기준(16)			145만원	김기준(16)	
15만원	김기준(16)			150만원	김기준(16)	
10만원	김기준(16)			155만원	김기준(16)	
5만원	김기준(16)			160만원	김기준(16)	
0만원	김기준(16)			165만원	김기준(16)	

개인동문

18만원	정성현(34)	이경조(39)	배준수(45)
15만원	이광모(11)		
14만원	호영진(12)	김대식(13)	이종은(20)
13만원	민병록(47)		
12만원	정일만(24)		
10만원	유병배(24)		
	최호중(5)	박종태(23)	송후홍(32)
	문상의(5)	이준모(7)	이정배(32)
	김명희(12)	권오준(9)	오웅석(52)
	김원복(12)	김용수(13)	박운건(9)
	김문영(14)	송병욱(13)	홍오식(9)
	조남용(14)	김세겸(15)	안승택(13)
	김현웅(16)	서정돈(15)	조진영(15)
	변광연(16)	김성삼(17)	이문재(17)
	김목민(18)	김형(18)	김충남(19)
	주승택(19)	이현교(18)	백응빈(19)
	홍신광(19)	이창순(20)	전제인(20)
	양기정(21)	이랑(21)	신덕영(21)
	김광열(23)	이양수(21)	이신복(22)
	김동석(23)	김인호(23)	유영근(24)
	양재관(25)	오삼환(24)	한완용(30)
	송종국(31)	박홍균(29)	강재성(30)
	윤창수(31)	김홍욱(33)	손재현(34)
	이현기(34)	최민영(34)	이영원(34)
	조순호(34)	홍용범(34)	홍재춘(34)
	김범석(40)	노준희(41)	고대진(45)
9만원	조남선(23)	김재문(33)	
8만원	주종열(26)		
7.4만원	김승열(24)		
7만원	전춘서(9)	오두영(12)	이태호(26)
6만원	나양배(32)		
5만원	강성환(36)		
	성락응(1)	박기영(3)	남상호(9)
	최웅규(16)	조원창(9)	이강(12)
	오태명(14)	이재건(23)	최대훈(23)
	홍민선(25)	장현식(23)	김동훈(24)
	이용선(26)	이대원(30)	함학림(30)
	박민희(31)	박진석(34)	김호중(31)
	박재홍(39)	한홍진(36)	박정원(38)
4.3만원	임향식(26)	추상민(44)	
4만원	김기창(15)	문효원(28)	어춘선(28)
3만원	이봉우(34)		
	차한영(11)	황선택(11)	이성환(12)
	김용기(15)		
	최종수(23)	이달형(14)	김효준(34)
	미국 뉴욕동창회		
	전희남(24)	김병한(30)	이정상(32)
	미국 워싱턴동창회		
	이석주(60)		
	미국 북가주동창회		
2만원	이동환(41)	정진대(41)	김민호(42)
	미국 LA동창회		
	서방원(45)		
	미국 서북미동창회(시애틀)		
	이석주(60)		
	미국 필라델피아동창회		
	이동환(2)	오정석(8)	정만순(11)
	캐나다 토론토동창회		
	김천주(13)	김천주(13)	박덕기(13)
	캐나다 밴쿠버동창회		
	홍영희(20)		
	제1회 합동 체육대회		
	인해욱(26)		
	(35회, 40회, 41회 동사회)		
1만원	이종열(29)	고영석(31)	김태기(31)
	최민승(31)		
	이동근(33)	강형석(35)	김민종(35)
	윤철목(38)	김진국(40)	오치승(40)
	손의성(44)		
	김철환(46)	김종균(51)	최용호(67)
	제1회 합동 체육대회		
	김중우(39)	김종식(28)	박진웅(35)
	(35회, 40회, 41회 동사회)		
	최덕만(37)	김석우(39)	김중환(39)

회별동호회별

1회 동창회(한국)	300만원	30회 동창회	1억 2,510만원
(일본)	784만원	31회 동창회	8,770만원
2회 동창회(일본)	23만원	31회 골프회	50만원
5회 동창회	1,050만원	32회 동창회	3,500만원
6회 동창회	130만원	33회 동창회	3,500만원
10회 동창회	500만원	33회 지우회	100만원
14회 동창회	1,400만원	34회 동창회	5,500만원
14회 역사탐방 동우회	300만원	34회 골프회	150만원
15회 동창회	5,400만원	35회 동창회	3,100만원
16회 동창회	6,020만원	36회 동창회	5,150만원
17회 동창회	5,130만원	36회 골프회	50만원
18회 동창회	2,112만원	37회 동창회	4,100만원
19회 동창회	2,000만원	37회 골프회	100만원
20회 동창회	2,000만원	38회 동창회	50만원
21회 동창회	4,273만원	39회 동창회	3,390만원
22회 동창회	3,000만원	40회 동창회	4,000만원
23회 동창회	4,000만원	40회 골프회	200만원
24회 동창회	2,000만원	40회 축구회	100만원
24회 건우회	400만원	41회 동창회	1,000만원
24회 골프회	100만원	42회 동창회	2,000만원
25회 동창회	4,810만원	43회 동창회	1,000만원
26회 동창회	4,100만원	43회 골프회	300만원
27회 동창회	7,150만원	44회 동창회	1,000만원
28회 동창회	1억 500만원	45회 동창회	2,000만원
29회 동창회	6,250만원	46회 자목회	200만원
중국 상해-화동동창회			410만원
미국 뉴욕동창회			712.8만원
미국 워싱턴동창회			217만원
미국 북가주동창회			130만원
미국 LA동창회			115만원
미국 서북미동창회(시애틀)			211.5만원
미국 필라델피아동창회			74만원
캐나다 토론토동창회			54만원
캐나다 밴쿠버동창회			45만원
제1회 합동 체육대회			100만원
인천지부			119만원
경동동문산악회			115만원
건우회			100만원
부산지부			100만원
삼성포럼지부			100만원
경설회			50만원
언론인회			50만원
도경회			30만원
KBS동문회			17만원
총동창산악회			217만원
청요회			500만원

본 지면은 총동창회와 모교 발전기금
조성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총동창회와 모교에 대한 동문들의 애정과
깊은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합니다.
금액에 관계없이 감사하게 접수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동참을 바랍니다.

동 창 회 비 계좌번호
우리은행 1006-380-744100
(사)경동고동창회

장 학 기 금 계좌번호
국민은행 512601-01-221414
(사)경동고동창회

야구후원금 계좌번호
우리은행 1006-087-100100
(사)경동고동창회야구부후원

장학기금 기부자 1995년 4월 1일 ~ 2025년 1월 10일

개인등문(누계)

4억원	정호(14)					최한호(40)	하상진(43)	유정석(43)	오정우(43)	안상중(44)
2억 6,180만원	오춘식(24)					강의석(45)	서철(45)	성창훈(46)	정정중(46)	정창오(46)
1억 4,737만원	김광열(23)					차성근(46)	이홍상(47)	최수현(49)		
1억 4,000만원	임종관(25)				400만원	임종두(16)				
1억 3,000만원	한상범(15)					360만원	이효선(26)			
1억 1,000만원	정병기(12)					310만원	주기관(5)	김선길(8)		
1억원	박용근(7)	황경노(7)	이동준(15)	위완조(18)	안준식(23)	300만원	남궁근(6)	김인기(9)	최세창(9)	채영복(11)
7,000만원	맹섭(15)						홍준식(22)	류재영(28)	김성후(30)	김강민(34)
5,750만원	박재준(23)						이재홍(35)			이근배(34)
5,000만원	김언기(13)					257만원	김진기(24)			
4,500만원	최동욱(33)						250만원	이용완(13)	윤토현(40)	
3,780만원	정동기(28)						235만원	피재성(47)		
3,000만원	최정욱(5)	이선일(17)					209만원	최광연(29)		
2,500만원	구관영(23)	박찬호(24)	김완식(32)				206만원	채경석(11)		
2,350만원	윤호철(29)						200만원	이승호(6)	이장원(6)	김동집(8)
2,336만원	노상범(28)							김승경(10)	구종서(12)	이경희(14)
2,000만원	변택(13)	장동호(24)	최규형(24)	최찬목(26)				김영태(24)	정현수(30)	한동호(30)
1,680만원	윤영식(29)					167.5만원	전희준(12)			
1,580만원	권오철(31)						150만원	안병갑(25)		
1,500만원	유희동(20)	박상은(23)	고형봉(24)	남상태(24)	박찬욱(24)		140만원	신을재(18)		
	이동주(29)	임태희(31)					103만원	홍철유(3)		
1,400만원	김기용(31)						100만원	이석주(2)	이규영(7)	김덕주(8)
1,323만원	정일만(24)							김창학(8)	맹선재(8)	조두형(8)
1,305만원	오해영(21)							박한우(14)	이태영(15)	민병서(17)
1,300만원	최영남(9)							이의건(20)	황원상(20)	황규호(21)
1,210만원	안병욱(15)							김영국(24)	김형률(24)	이중규(24)
1,100만원	조영휘(6)							박진열(28)	강춘식(32)	김우승(32)
1,080만원	이수연(28)	이종범(28)	김승한(30)			75만원	신광하(21)			
1,048만원	김성기(26)						70만원	김휘수(24)		
1,000만원	신화용(3)	김현식(8)	류주형(9)	이근수(10)	이종원(10)	60만원	고중명(2)			
	박영서(15)	송기태(15)	임우빈(15)	지경홍(15)	한태희(15)	50만원	오인철(14)	이재환(17)	김한식(18)	고국범(24)
	구본명(16)	김수중(16)	이성권(16)	윤진섭(22)	안명규(24)		김후곤(40)	이대력(53)		고동준(24)
	우태형(24)	이훈(24)	임은호(24)	박현규(25)	정인진(28)	30만원	이규본(17)	윤용한(19)	전제인(20)	양기정(21)
	최경희(28)	김명권(29)	장용진(32)				정용호(27)	윤광의(32)	이석구(33)	김남두(22)
800만원	이문재(17)					23만원	김재천(18)			
700만원	신문진(20)	김형기(28)				22만원	최화섭(22)			
663만원	백운승(41)					20만원	김동환(13)	김용수(13)	한훈(28)	이성재(29)
600만원	김익수(31)						19만원	이재춘(30)	조순호(34)	노준희(41)
540만원	이상민(35)						11만원	이상규(35)	조용해(42)	고근수(43)
530만원	박기천(11)							10만원	김희탁(8)	우윤근(11)
524만원	옥상철(46)								이순권(13)	이용휘(13)
510만원	김영택(25)	김건홍(27)							정무열(14)	박종삼(15)
500만원	미시로(3)	백창현(4)	김운용(5)	문상의(5)	박효원(5)				고준영(16)	김성삼(17)
	원황상(5)	김병길(7)	박종업(7)	이주범(7)	박복식(9)				윤화일(18)	백운빈(19)
	권오현(10)	최영효(10)	구왕희(11)	박지호(11)	박해룡(11)				최석진(19)	최석진(19)
	이성용(11)	정인균(11)	최동식(11)	김양현(12)	김주경(12)				유동립(23)	이승국(23)
	박영식(12)	송병남(12)	이완상(12)	강정구(13)	이병만(14)				김덕호(24)	김준식(24)
	최공웅(14)	김동욱(16)	김현풍(16)	배치관(16)	안광구(16)				유영근(24)	윤창호(24)
	유준환(16)	이상용(16)	이용익(16)	이의호(16)	임성재(16)				박서근(27)	최유진(27)
	한광세(16)	지일남(17)	김욱(18)	신영재(18)	이건영(18)				김석주(29)	최종식(29)
	이혜광(19)	김성순(20)	이종한(20)	정태인(20)	이양수(21)				김기홍(31)	안광민(32)
	이익우(22)	박수영(23)	김재진(24)	나성식(24)	박제화(24)				임경식(33)	윤형선(35)
	이동희(24)	주승일(24)	최중기(24)	총광표(24)	김현린(25)				이창민(35)	민병록(37)
	전우희(25)	최훈영(26)	김영수(27)	김호중(27)	유희만(27)				남궁현(41)	무명
	강병직(28)	김광중(29)	김해근(29)	박종성(29)	이정만(29)	9만원	강우희(42)	강인중(42)	구운하(42)	김상민(42)
	정한탁(29)	하창수(29)	김대휘(30)	김민(30)	양보(30)		김재준(42)	김한기(42)	노진우(42)	김성룡(42)
	경대수(31)	고승환(31)	조정근(31)	최동욱(31)	송후홍(32)				박대준(42)	박성준(42)
	이기욱(32)	홍기문(32)	오동희(33)	오영국(33)	이우교(33)				박종호(42)	심봉규(42)
	김상순(33)	이충우(33)	용석식(34)	이기안(34)	이주영(34)				양용석(42)	양정무(42)
	김의진(35)	문상권(35)	고병관(36)	권현준(36)	남상태(36)				연제권(42)	유웅기(42)
	류영모(36)	박동원(36)	박병주(36)	이철원(36)	김길동(37)				윤오(42)	이경준(42)
	김영국(37)	김후종(37)	박상남(37)	이승엽(37)	이영석(37)				이규택(42)	이미진(42)
	김경규(38)	김재우(38)	김창신(38)	백환기(38)	이환희(38)				이태훈(42)	정현준(42)
	임중혁(38)	김석렬(39)	유종선(39)	전풍준(39)	김호종(40)				조용해(42)	주인수(42)
	정명호(40)	전승재(40)	이종철(40)	김범석(40)	최길수(40)				최순호(42)	최강현(42)
						7만원	조봉수(43)			
						6만원	김태기(31)			
						5만원	이석주(8)	유영희(23)	남궁호(30)	김호중(31)
							김치형(35)	전종욱(50)		안동규(31)
						4만원	이기랑(23)	곽상태(26)	정복균(32)	
						3만원	조태승(13)	이동락(25)	이재훈(25)	김용순(27)
							고영록(36)			김명섭(29)
						2만원	이진영(28)	김우영(34)	박경범(34)	
						1만원	박종탁(8)	남충우(24)	오용환(24)	이종열(29)
							김동규(31)	김홍진(31)	강화수(35)	김영찬(30)
								김동호(45)		

회별·동호회별

13억 7,410만원	낙산회(회장 32회 홍기문)				940만원	울산지부
1억 2,000만원	30회 동창회				800만원	34회 동창회
7,000만원	32회 동창회				700만원	35회 동창회
7,085만원	청요회(회장 33회 김수재)				550만원	일본 동창회
6,000만원	24회 동창회				500만원	33회 동창회
5,000만원	31회 동창회				400만원	해동회
3,083만원	21회 보나성				290만원	도봉지부
2,500만원	14회 동창회, 일우회				200만원	경기북부지부
2,350만원	선암장학재단(29회 윤호철)				150만원	고양지부
2,200만원	5회 동창회				130만원	필라델피아지부
1,500만원	7회 동창회	10회 동창회	11회 동창회	12회 동창회	북부지부	국민은행동문회
1,050만원	41회 동창회					70만원
1,000만원	6회 동창회	8회 동창회	9회 동창회	13회 동창회		50만원
	15회 동창회	16회 동창회	17회 동창회	20회 동창회		38회 동창회
	21회 동창회	22회 동창회	23회 동창회	25회 동창회		
	26회 동창회	27회 동창회	28회 동창회	29회 동창회		
	44회 동창회					

야구후원금 고액 기부자 2000년 4월 1일~ 2025년 1월 10일

야구후원금 고액 기부자

9,000만원	권오섭(34)
2,400만원	황경노(7)
2,000만원	정병기(12) 장화관(14)
1,000만원	최정욱(5) 김용휘(24) 오춘식(24) 안선호(28)
700만원	정 호(14)
500만원	임종관(25) 이문규(31)
360만원	안재욱(46)
320만원	이창일(14)
300만원	최세창(9) 변 택(13)
210만원	박 철(23) 강순철(29)
205만원	서정주(37)
200만원	박 철(23) 전승재(40) 유동우(47)
120만원	최복현(14)

회별·동호회별

4,010만원	33회 동창회
2,250만원	김준식(24회) 외 경동건우회 회원
2,000만원	이지송(14회) 외 경동회 회원
1,470만원	14회 동창회
1,420만원	24회 동창회
1,000만원	32회 동창회 35회 동창회
900만원	34회 동창회
800만원	28회 골프회
600만원	28회 동창회
500만원	29회 동창회 30회 동창회 31회 동창회
400만원	26회 동창회
220만원	23회 동창회
200만원	15회 동창회 20회 동창회 21회 동창회 27회 동창회 36회 동창회 37회 동창회 황태연(21회) 외 뒷뿌리회 회원
150만원	12회 동창회
1,400\$	미국 샌프란시스코 14회 동문일동
1,350\$	미국 LA동창회 회원 일동
1,100\$	미국 워싱턴DC동창회 회원 일동
500\$	미국 씨애틀 동창회 회원 일동

100만원 기부 동창회 및 개인명단

동 창 회	7회	9회	10회	16회	17회
개 인	18회	19회			
	동건회	오봉산악회	21회 중앙지부	경기북부지부	인천지부
	이동식(1)	문상익(5)	박효원(5)	이장원(6)	김선길(8)
	김현식(8)	박해룡(11)	이완상(12)	오성근(13)	윤덕노(14)
	정성호(14)	조현종(14)	최공웅(14)	신명재(18)	남상희(19)
	문우행(19)	박건동(22)	박승기(23)	이중규(24)	임은호(24)
	최규형(24)	김영택(25)	박병용(25)	이 철(25)	전우희(25)
	조충구(29)	김덕배(30)	유민근(31)	정종승(31)	강준식(32)
	조성용(32)	정우영(34)	유종원(37)	전영인(47)	

콜롬비아 봉사활동으로 행복한 후반기 삶

글·사진/ 신철수(32회)

을사년 새해에도 동문 선후배님 모두 더욱 건강하시고 만사형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저희 32회는 올해 졸업 50주년을 맞기에 어느 때보다 뜻깊고 감회가 깊은 한 해이네요.

저는 대학 졸업 후 공직생활로 장기간 봉직하다가 은퇴 후에는 보다 자유로운 삶을 갖고 싶어 고향 시골(경북의성)에서 농사일, 늦깍기 대학원 공부 등으로 부지런을 떨며 지내온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느덧 60대 후반이라는 제 인생의 여정표를 보고서는 조급함도 들었습니다. 그냥 안주하는 소극적 삶 보다는 좀 더 활기찬 무엇을 위해 새 세상으로 저를 한번 던져보자는 취지에서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해외봉사활동(1년)을 참가하였습니다.

선택한 지역은 지구반대편 중남미국가로 유일한 6.25참전국인 콜롬비아, 그곳 안데스산맥 고산지대(해발 1200~1300m)에 위치한 'La Pena'라는 크지 않은 시골이었습니다. 출발 전

에 치안불안, 마약 등 콜롬비아에 대한 염려 얘기들을 접했으나, 다행히 현지생활에서는 사람들 모두 온순, 친절하고, 열대기후대의 천혜자연 속 여유롭고 평화로운 삶들이라 감사하게 잘 적응·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소속한 현지기관은 한국전쟁시 그곳의 많은 젊은이들(16~17세)이 영문도 모른채 파병, 희생된 지역의 아픈 과거를 기념하여 이름 붙혀진 <대한민국학교(Colegio de Republica de Corea)>였기에, 오늘날 한국내 젊은이들 사이에도 잊혀져 가는 6.25전쟁이 그곳 오지에서 남모르게 기억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는 저로 하여금 그곳의 학생, 주민들과의 관계를 보다 친근감과 애정으로 다가가게 하였고, 저의 작은 봉사활동이 말없이 사라져간 젊은 영혼들에 보답한다는 마음에서 보람과 자부심 또한 가지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에게는 주로 K-Culture(한국문화) 소개를 비롯

선진한국의 발전배경, 교육열 등 긍정소재로 또한 미래 꿈, 도전정신, 경제, Global mind 등 제 나름 필요하다 생각한 맞춤형 콘텐츠를 힘껏 전달하였으며, 지역민들과도 각종 행사참석, 생일맞이 가정방문 등 자연스런 교류접촉을 넓히는데 노력했습니다.

봉사기간을 마칠 무렵 그 지역의 한 방송매체는 인터뷰 프로를



마련하여 전·현직 교장선생님들과 저를 초청, 봉사활동 후일담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면서 '한 개인(한국인)으로 얼굴, 문화, 언어가 다른 이곳 지역민들 모두에게 한국인,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를 알게 했다', 그리고 '이곳의 환경을 더욱 풍요롭게 하였다', '국경없는 우정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다' 등 호평해 주었습니다.

1년이라는 길면 길고 짧다면 짧은 봉사경험은 저의 남은 삶 기간에 든든한 긍정에너지를 간직하고자 합니다. 향후에도 또 기회가 주어진다면 멀리 아프리카국가에 가서 '그곳 사람들과 시간을 함께 하고, 미래세대들의 역량을 키우는 일들에 기여하고 싶은 욕심도 있습니다.

'후반기 삶을 어떻게 살아갈까?'에 대한 주제가 요즘 부쩍 관심이 되고 있지요. 이와 관련 '윌리엄 새들러'(美 사회심리학자)는 『마흔 이후 30년(The third age)』 책에서 후반 삶을 자기실현을 추구하며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제2 성장시기로 정의한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날 세계 속 한국의 위상이 높아진 것을 실감하면서, 콜롬비아 학생들, 지역민들이 저에게 보여준 호의, 기대, 동경의 모습들이 눈에 스쳐옵니다. 이는 저로 하여금 한국인이라는 감사와 자랑과 함께 그러한 세계인들의 기대에 부응해



야 할 무엇에 대한 사명감, 부담감 또한 갖게 함을 느낍니다. 따라서 우리사회가 앞으로의 삶이나의 욕심, 이기심에 급급하기 보다는 넓은 시야를 갖고서 밖으로의 봉사 노력하는 자세로 보다 가치로운 삶을 지향하는 모습들이었으면 하고 기대해 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경동동문님 모두,

2025년 새해가 혼란한 국내상황이 조속히 안정화 되고, 동문님들간 서로를 향한 진정한 박수와 응원소리가 넘치기를 요망합니다. 아울러 바쁜 생활에도 〈동인랑〉임을 늘 기억하며 격의없는 소통, 사랑, 끈끈함과 긍정 마인드 & Proactive자세로 힘찬 전진을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

제36대 총동창회 김상순 회장
취임을 축하합니다.

경동총동창산악회 집행부 일동

제36대 총동창회 김상순 회장
취임을 축하합니다.

33회 삼토회 일동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 …

「나는 반딧불」이라는 노래의 가사 첫 부분입니다. 단 네 줄 가사에 인생이 담겨있습니다. 밤하늘에 빛나는 '별'인 줄 알고 살아오던 어느 날, 자신이 '별 볼 일 없는' 벌레라는 정체성을 자각한다면 얼마나 큰 상실감이 몰려올까요. 대부분 좌절하거나 분노하겠죠.

여기에는 반전이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 요즘 하는 말로 '정신 승리'라고 폄하할 수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런 생각이야 말로 우리가 인생을 대하는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이 노래가 인기를 얻는 이유겠죠.

밤하늘에 점점이 박혀있는 별들 사이로 천천히 움직이는 빛으로 환상적인 광경을 선사하는 반딧불이 될지, 그저 개똥밭에 구르는 개똥벌레가 될지는 온전히 우리의 자세에 달려있습니다. 반딧불은 청정지역에서만 사는 벌레입니다. 예전에는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볼 수 있었으나 요즘에는 보기 힘듭니다.

반딧불은 매우 천천히 움직입니다. 맨손으로 그냥 잡을 수 있을 정도입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건지, 자기가 아름답다는 걸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파리, 모기, 바퀴벌레 등은 기를 쓰고 잡는 사람들이 반딧불은 잡지 않습니다.

반딧불 이야기를 장황하게 늘어놓은 이유는 바로 우리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33회가 총동창회장을 맡았습니다. 1974년 입학생인 33회는 무시험 1회입니다. 1회부터 32회 까지는 입학시험을 쳐서 경동에 입학했으나 33회는 컴퓨터로 학교를 배정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무시험 세대가 50년이 넘었습니다. 올해 입학하는 신입생들이 84회입니다. 시험 세대, 무시험 세대를 구분하는 것조차 무의미 합니다.

경동은 이제 100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33회야말로 그 중심에 서서 가교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빛나는 별들(선배) 사이로 천천히 유영

하는 반딧불(후배)이 합쳐져 밤하늘을 화려하고 아름답게 꾸미는 그림을 그려봅니다.

「동인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환점에 선 경동의 선후배를 한데 묶는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동인랑의 목표는 '온고이지신(溫故而知新)'과 '일신우일신(日新又日新)'입니다. 전통을 계승하면서 항상 새롭게 나아갈 것입니다.

편집위원들은 다행히 36회부터 80회까지 고르게 있습니다. 새로운 정보와 사연을 발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전통 계승하면서 새롭게 나아가는 전환점



손장환 (33회, 제36대 총동창회 홍보부회장)

경동OB합창단

단원모집



경동OB합창단원을 모집합니다.
경동 동문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합창연습 | 매주 월요일 오후 6시~8시

공연예정 | 2025년 10월 23일(목) 오후 7시 30분 서울아트센터 도암홀

지휘 임한귀(39회) 반주 엄영신

경동OB합창단은 2024년에 창단된
경동중고등학교총동창회의
공식 동호회입니다.

단원가입 및 후원 문의 : 02-744-1001(총동창회사무국)
단장 조동식(27회) 010-5254-7198
총무 이경초(39회) 010-5324-1448

오피스디포

문구·사무용품 업계 1위
사무용품을 넘어
기업소모품 까지



(주)오피스디포 서울경기총판(성수점)의 문구·사무용품 전문 쇼핑몰



경동고등학교 33회 김상순(대표)

(주)오피스디포 서울경기총판

www.officeleader.co.kr

E-mail. sungdong@officedepot.co.kr

(04782) 서울시 성동구 연무장5가길 21
홍일빌딩 B1 (성수점)

TEL : 02-3409-5588

FAX : 02-3409-4466

